

# 주간 설악신문

주간설악신문 | 제817호 | 2007년 7월 23일(월) | 대표전화 033-636-2222 | http://soraknews.co.kr

### 법무사 신선의 사무소

등기	소송(소장)	신청	기타
소유권보존·이전	민사	지급명령	공탁
전세권 설정	형사	가압류	공증
근저당권 설정	가사	가처분	경매
지상권 설정	행정	강제집행	호적
법인설립·변경			
주식회사설립·변경 등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옆 1층 ☎ 638-0100

## “이사·인사위원 전원 경질 불가피”

### 김병욱의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쇄신 시정질문, “징계 경감·인사문제 야기”

#### 장철규부시장 “직원 반드시 공개채용·이사회·인사위보완”

속초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일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병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관행화된 직원 특별채용, 과도한 성과급 및 각종수당 지급,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의 비합리적 구성·운영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구조적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결해 시민의 공기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공단의 경영쇄신책 강구와 이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단이 단 한차례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를 경감시키고, 특별채용 등 인사문제를 야기한 이사와 인사위원 전원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철규 부시장은 “2004년

~2006년까지 총 26명을 특별채용했다”며, “인사규정을 개정해 직원 채용시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이전까지 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부시장은 특히 “이사회는 현 비상임 이사 6명 외에 변호사, 회계사, 학계인사 등 경영전문가 2명을 이사로 추가 임명하고, 인사위원회는 기존 구성을 백지화해 비상임 이사 2명과 외부인사 4명을 신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총 7명 중 6명이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시 자체감사에서 이사회와 인적 구성의 중복 문제가 지적됐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단 직원의 직급별 평균 연간 근로소득액이 공개됐다.

〈표 참조〉

김 의원은 “적자기업이 경영평가를 통해 오히려 수익을 창출했다며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수당을 법령 근거 이상으로 지급해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다”면서 공단 직원의 직급별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장 부시장은

〈공단 직원 평균 직급별 근로소득〉

(단위: 천원)

직급	근로소득액
이사장	81,413
부장(3급)	71,016
팀장(4급)	63,817
5급	57,534
6급	44,924
7급	38,064
계약직	21,524
일용직	20,498
환경미화원	32,842

(원천징수전)

결격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 해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이사장의 사과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징재환 기자



속초해수욕장 물놀이 즐거워요

장마 영향으로 연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모처럼 날씨가 맑게 개자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용수 기자

짧은 생명이야. 우리 쌀을 지킵시다.

## 고성오대미

▶음식점 전용쌀 판매개시 ▶주문즉시 가공판매

☎ 033) 681-5921~2

주문배달문의 080-633-4000

\*주문즉시 단 한포라도 가정까지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고성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의 힘찬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온 도민의 열정과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또 한차례 좌절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낙담과 탄식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8년간의 도전으로 우리는 강원도를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도민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힘찬 도전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속초시**  
SOKCHO

# 양양송이 인공재배 진위검증 논란

## 양양군 “자체 검증결과 송이 아닌 싸리버섯”

### 강원대 “양양군이 오염샘플 추출한 것 같다”

양양군이 강원대 산학협력단 성재모 교수팀에 의뢰해 추진해온 양양송이 인공재배 학술용역이 올해 대량생산 기술 이전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은 가운데, 성교수가 연구실적으로 내세운 송이균환이 사실은 싸리버섯균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양양군농기센터 입장 =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성재모 교수팀이 실시한 ‘양양송이 인공접종 연구사업’에 따라 현재 시험재배지에서 자라고 있는 균환을 확인한 결과, 송이가 아닌 싸리버섯 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부터 서면 논화리와 손양면 상왕도리 등 두 곳의 시험재배지에서 추출한 6점의 균환 샘플을 자체 기술로 확인한 결과, 모두 양양송이가 아닌 싸리버섯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인공접종 연구 첫 해인 지난 2005년 송이 발생률이 적어 DNA 검증을 성교수에게 요구해, 성 교수

로부터 ‘미국 오리건주 대학에 의뢰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99%가 양양송이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그 때는 일치했던 DNA 결과가 우리의 자체 검증 결과에서는 싸리버섯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년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15~50%의 송이발생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으므로, 현재 시험재배지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샘플을 갖다 놓고 검증해도 양양송이로 확인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문제는 외부기관의 DNA 검증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따라 최근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성 교수의 양양송이 인공접종 연구와 관련 특허논문을 검증해야 하고, 검증이 안 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또 이달 중으로 서울대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DNA 관독 전문기관에 진위 여부 검증을 의

뢰할 방침이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입장 = 이에 대해 강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난 18일 “양양송이 인공재배 학술연구용역 결과는 그동안 같은 환경에서 수행해온 검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조만간 균학회 학술지에도 실릴 예정이다”며 “현재로서는 양양군이 자체 검증과정에서 오염샘플을 추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술연구용역이 잘못됐다면 용역수행 중에 하자보완 등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3년차 용역체계가 결렬된 상황에서 진위여부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검증에는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용역을 수행해온 시험재배지의 환경 관리 상태를 감안해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양송이 인공접종 연구는 학술연구인데 특허논문에까지 검증한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더우기 검증이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이 양양송이 인공접종과 관련, 상반된 결과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량생산 사용권 문제를 떠나 어떻게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진위를 가리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올해 양양송이 인공접종 학술연구 용역 마지막 3년차를 앞두고 양양군이 송이 대량생산을 위해 인공접종 방법 무상사용권을 요구하자, 강원대가 지적재산권 문제여서 별도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양측의 용역계약이 결렬됐다. 김주현 기자

# “교정시설 건립 시가 나서야”

## 속초사회단체협의회 성명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가 교정시설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시번영회와 재향군인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교정관련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속초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속초시는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지역 장래를 위해 법무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교정관련 시설 건립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시의회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교정관련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속초시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법무부가 현재 영월과 포항 등에 건

립하고 있는 교정관련 시설이 철조망이나 담장이 없는 최첨단 관공시설로 추진돼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정관련 시설이 건립될 경우 약 1,000여명의 상주인구 증가 및 면회객 등을 통한 소비촉진 등으로 속초시에 막대한 부가적 이득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속초지역 경제 3단체의 명의로 교도소 및 교정관련 시설 유치와 관련한 속초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고, 지난 3일에는 법무부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종일 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협소한 속초시의 여건상 공공기관 유치 이외에는 시세 확충 및 인구증대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서 교정관련시설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빠른 시일 내에 신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초시와 긴밀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속초교도소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9051@hanmail.net



속초·고성 이민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속초 고성 이민여성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민여성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4일 영랑초교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꼬리잡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우철 기자

창립 24주년

# 뉴욕제과

매일 매일 신선한 빵을 속초 전지역 배달(빵·케익)  
여름성수기 팔빙수 배달가능(여름별미)

호텔 제과·제빵 경력 40여년(조선호텔, 신라호텔, 서울 프라자호텔 등)경력의 김려숙 상임고문영입, 고객들께 보답하고자 제과명장에 도전중인 김려숙 상임 기술고문을 모시고 끝없는 연구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4주년을 맞아 더 맛있는 웰빙 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속초시 교동 삼거리**  
T. 632-8440, 635-7966, F.631-7966

충청도민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북지역 충청도민회 회장 이규창

# 우리은행 뒤 재해위험지구 정비

## 속초시 20억원 들여 토지·가옥 보상 철거...동명동 8통도 2009년부터 정비

속초시가 장마철과 태풍 북상시기를 맞아 재건축사업의 표류로 재해위험에 방치돼 왔던 중앙동 우리은행 뒤편 절개지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재해 발생 시 붕괴 우려가 높은 우리은행 뒤 절개지에 위치한 중앙동 4통 일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중앙동 4통 일대는 재건축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장마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왔던 절개지 위 낡은 가옥들이 대부분 철거됐다.

또 우체국 뒤 절개지 옹벽공사가 진행중 이어서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시마다 반복되던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게 됐다.

시는 지난 5월 중앙동 4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가 사유지 16필지 3,342㎡와 건물 15동에 대한 보상 및 철거작업을 마무리 했다.

또 정밀 안전진단 결과 우리은행 뒤 122m 구간에 설치된 옹벽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자, 기존 옹벽을 보

수 보강하는 선에서 정비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총공정 69%를 보이고 있는 중앙4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오는 10월중 정비사업이 완료돼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될 전망이다.

김모씨(여,57)는 “재건축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절개지 위 가옥들이 집수리를 미뤄와 항상 재해위험에 불안해 왔다”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시정 뒤 동명동 8통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억 7,000여만원이 사업비가 지원돼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측량 및 감정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토지 22필지와 가옥 16동에 대한 보상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명동 8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필요한 30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오는 2009년부터 정비사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동명지역까지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국비를 요청할 만한 재해위험지역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고명진기자



지난 10일 채용생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장마대비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 속초시 장마대비 현장점검

### 13곳 상습침수지역·공사현장

속초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관내 공사현장 및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장마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채용생 시장은 지난 10일 재난산림관리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토목담당과 함께 성광고회와 아남프라자 일대 등 13곳의 상습침수피해지역과 하수구 취약지구, 조양~교동간 도로 공사현장, 대포항 항만시설공사현장 등 여름철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채 시장은 관내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장마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와 점검으로 사전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매년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침수 우려지역 지정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관 부서별 자체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환기자

고성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잰버리 아영장은 약 100만㎡의 드넓은 부지에 수려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고 금강산및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데다, 주변에 온천이나 콘도시설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사업부지로 정한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기자

# 고성 잰버리장에 국제 명상센터 건립

## 문화부·조계종, 참선센터·숙박시설 등 조성...2009년 11월 개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국제잰버리 아영장 부지에 대규모 명상센터가 건립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불교 조계종이 올해부터 3년간 국비 등 190억원을 투입해 3만3,000㎡ 부지에 연건평 1만1,600㎡ 규모의 ‘국제 템플스테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이어져온 ‘간화선’(참선 수행방법의 하나)을 체험할 수 있는 참선센터, 교육 및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자인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최근 국제 템플스테이센터의 건립부지로 이곳을 최종 확정하

고, 올해 61억원을 들여 설계와 토지 인허가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연말부터 공사를 착공, 2009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명상센터의 건립에 나선 것은 웰빙과 명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도의 오쇼 라즈니쉬 명상센터 등 국제적 명상센터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한류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조계종은 2009년 1단계 국제 템플스테이센터 준공 이후, 넓은 부지를 활용해 세계에 내세울 만한 명상센터로 규모를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속초시수협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우리수협과 함께 일할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1. 공개모집부문

채용부문	모집인원	해당업무	자격요건	채용방법
비정규직 (계약직)	1명(여)	동명직매장 창구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이상 학력소지자</li> <li>25세미만 속초시거주자</li> <li>용모 단정한 자</li> <li>당 수협 인사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 결정통지</li> <li>- 속초시수협 조합원 자녀 5%가산점</li> </ul>

### 2. 제출서류

-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라. 조합원확인원(조합원자녀에 한함) 1부
- 마.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 바.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 신원조회서(범죄사실조회서) 1부

3. 제출처 및 접수마감 : 속초시수협 총무과 2007. 7. 27 일 18:00 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수협 총무과 ☎ 633-126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

# “속초는 발해역사 체험루트 완성 거점”

### 발해사 기초조사 학술용역 보고회 장정룡 교수 밝혀, “발해국을 중심 테마로”

발해사 자료 기초조사 학술연구용역보고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속초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채용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용역작업을 맡은 강릉대 장정룡교수는 “발해역사체험장 건립 위치상 속초시가 그 적지이며, 대조영세트장의 건립으로 인한 연계관광객 조성과 강원도와 속초시의 건립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체험장 건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교수는 “중국측의 사료인 ‘신당서’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5대를 이어오는 동안 대동

강에서 만주 대륙, 중국 만리장성 앞 요동까지 광활한 대륙을 차지한 동북아시아의 신흥 강대국”이라고 소개했다.

또 “현재 국내에서는 발해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공간이 없고 지금도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발해역사체험장 건립은 주권국가의 역사연식제고라는 측면과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실로 중차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초시에 발해역사체험장이 들어서야 할 배경으로 이지역이 환동해권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서 발해유적지가 산재한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연계되는 해양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한민족 발해역사체험루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점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장교수는 발해역사체험장 조성 및 활용방안으로 “발해역사체험장은 발해유적 유물의 전시공간과 발해사료의 이해, 발해역사의 체험, 발해문화의 공감, 발해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모두 150억여원의 건립비용이 소요되는 발해사 야외전시관, 발해역사관, 발해애니



발해사 자료 기초조사 학술 연구용역보고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 속초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활동

속초시 통장협의회가 지난 16일 인천에서 2007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홍보활동을 벌였다.

속초시 통장협의회(회장 최영구)원 24명은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원 30명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과 주안역,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오는 10월 11일 ~13일까지 청초호 유원지에서 펼쳐지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이날 오후에는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송도경제자유구역 갯벌타워에서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속초지역 관광안내 및 수산 특산물인 것갈류의 홍보활동도 가졌다. 고명진 기자

매이션영상관, 발해민속실습장, 발해국제사회의장 등의 건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해역사체험장과 대조영 세트장 연계 활용방안으로 “대조영 세트장이 고구려와 당나라 건물시설을 주로 재현하였으므로, 발해역사체험장은 발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차별화 해 발해국 중심 테마로 발해와 고구려, 당나라 등 삼국의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명진 기자 mjg061@hanmail.net

# “지역경제 가장 우선 투자돼야”

### 양양군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최대 현안사업 케이블카 설치 꼽아

양양군이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장기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투자돼야 하는 분야로 지역경제(21.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분야가 19.6%로 뒤를 이었다. 또 투자를 늘려야 하는 분야는 산업경제 21.2%, 보건여성복지 18.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해양수산이 28.3%로 가장 높았고, 농정산림(17.6%)과 도로건설·교통(17.1%)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우선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환경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38%), 청정 1급수를 위한 수자원보전관

리(33.3%) △문화관광 분야는 매력 있는 관광지 조성 및 개발(38.4%) △체육청소년 분야는 체육시설의 확대(28.6%)를 꼽았다.

또 △보건의료분야는 노인복지향상(33.6%),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 강화(20.6%) △농정축산분야는 웰빙형 특화작목의 특성화와 차별화(26.5%) △산림분야는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자원조성(36.9%)을 우선 투자 사업으로 선택했다.

특히 △지역경제분야는 농림수산업 체험을 통한 소득 증대지원이 32.5%로 다른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도로건설·교통분야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충이

23.4% △해양수산분야는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이 31.8%로 높게 나타났다.

현안사업 중 가장 우선 투자돼야 하는 사업으로는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 설치(65.4%)를 꼽아 양양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재확인됐으며, 종합스포츠타운 건설(19.9%), 국립연어과학관 건립(6.6%)이 그 뒤를 이었다.

양양군의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자체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41.6%로 가장 높았고, 전신성과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과다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20.6%로 나타나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 인터넷과 서면 등을 통해 21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주현 기자

## 2007 학년도 고성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대상자 및 전문강사 모집

저희 고성청소년 문화의 집 ‘아띠(사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가의 정책 사업과제로 청소년에게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아띠(사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추천해주시면 성실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 : 맞벌이 가정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교육일시 : 2007년 01월 08일 ~ 2007년 12월 30일

★지역아카데미★  
★방과후 아카데미★

구분	주도학습(1시간)	기본공통과정(1시간)	전문선택 과정 (2시간)		테마별 체험학습 과정 (3시간)		생활지원과정	특별지원과정
			영역	예시(안)	영역	예시(안)		
초등학생	숙제지도 자율학습	보충심화학습 (영어, 수학, 급수한자)	문화·예술	사물놀이	과학탐구학습	과학기구만들기	무료급식 수업비무료 건강관리 생활상담/전문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차량지원	학부모간담회 가족캠프 학부모상담 학부모교육
			스포츠	방송댄스	견학학습	박물관기행		
			과학·탐구	컴퓨터(W/P3 급)	문화·예술	공예 및 예체능		
중등학생	숙제지도 자율학습	보충심화학습 (영어, 수학, 일본어)	언어영역	노래수화, 영상토론	체험학습	모니터링	생활상담/전문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차량지원	학부모상담 학부모교육
			문화·예술	한지공예, 연극놀이	과학탐구학습	과학기구만들기		
			스포츠	호신술	견학학습	박물관기행		
			과학·탐구	컴퓨터(W/P2 급)	문화·예술	공예 및 예체능		
			언어영역	토론및논술,	체험학습	모니터링		

전문선택	예능프로그램 (예시안 - 바둑, 과학, 역할극 등)	초등	2시간	1주(2시간)
		중등	2시간	1주(2시간)
※ 기본공통과정(영어, 수학, 한자, 사회) 무료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전화 : 682-1318 ~ 1328				

## 고성 청소년 문화의 집

### 프리랜서 전망대 <30> 높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논란

# “도내 최고...건축행위 줄고 지역경기 침체 원인”

“주택용도로 돼 있는 건물 2층에 용도변경을 해 호프집을 하려고 하니, 정화조 30인용을 설치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8백만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건축물 신·개축이나 용도변경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정화조가 공공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로 연결될 때, 용량이 추가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그 비용을 내라는 뜻이다.

◆김성근의원 시정질문 = 지난 19일 열린 제 161회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성근의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를 했다.

김성근의원에 따르면 전국 1백여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초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11개 시군 중 전북 남원시가 톤당 42만8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

해남군이 톤당 2백81만4천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속초시가 톤당 2백54만2천원으로 상위 3번째를 나타냈다고 한다.도내에서는 가장 높았다.

그 원인으로 지난 2001년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 시군보다 많아 결국 투자비용 회수에 따른 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라고 한다.

김의원은 “다른 시·군보다 높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속초관내에 대형 건축물 등 건축행위가 줄고 상경기가 침체되는 한 원인”이라며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과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이창우 소장은 “당시 속초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비굴착 추진공법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시내 중심지 차집관로 공사 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는 물론 상권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금액을 동결했고, 최대 10개월 분납안내도 하는 등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10월 이후 10톤이하 부과대상 제외 = 오는 10월부터 1백52㎡(46평)이하의 음식점, 6백61㎡(2백평)이하의 소매점, 1천3백22㎡(4백평)이하의 단독주택 등 하루 10t 이하의 오수발생 건축물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27일 하수법이 전부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지난 20일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관련 의견수렴 회의를 거쳐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속초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고로 5인 가족 기준 한 가정이 하루에

평균 0.5톤의 오수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오면 중수도 이용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된 하수도법 적용 때 미부과되는 하루 10톤이하의 건축물은 평균 원인자 부담금 징수건의 65%를 차지, 약 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원인자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총 1백27건, 34억1천1백여만원 중 △신축 57건, 2억5천8백여만원 △증축 21건, 6천2백45만여원 △용도변경 37건, 2억3백만원 △아파트 3건, 9억4천9백만원 △택지개발 4건 13억3천만원 △기타 5건, 6억9백만원 등이다.

하루 10톤이하는 총 1백7건, 3억6천여만원 중 △신축 51건, 1억5천, 증축 21건 6천2백45만여원 △용도변경 35건, 1억4천8백여만원 등이다. 이수영프리랜서 기자

## 속초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시급

이금자의원 시정질문서 제기...아동학대신고 2005년 ~ 올 6월 총 39건

아동 학대 발생시 신속한 상담과 처리를 위해 속초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속초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금자 의원의 아동상담소 속초 설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 김영숙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상담소는 관할구역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위치 등을 검토해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아동상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현재는 속초시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동해시에 있는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상담과 조사, 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 급하게 처리해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 김 과장은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39건으로, 조치 결과는 ‘시설입소’ 26건, ‘귀가 조치 및 가정 위탁’ 각 5건, ‘진행 중’ 3건이라고 밝혔다.

아동별 취학상태는 미취학 15명, 초등학교 14명, 중학생 7명, 고등학교 3명이며, 성별로는 남아 29명, 여아 10명으로, 피해 학생 중에는 초등학교 이하와 남아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아동 피해 사례가 접수 되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판정한 후, 필요시 복지센터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위탁을 의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충질의에서 김강수 의원은 아동위원회가 설치된 지 1년이 넘도록 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존치 이유가 있느냐고 강하게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조만간에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재환 기자

##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마쳐

재해침수지역 현지답사·시정질문 등 가져

속초시의회(의장)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재해침수지역 현지답사 결과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가진 뒤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19, 20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김진기의원은 속초해수욕장이 지난 6일 개장했으나 작년 10월 발생한 너울성 파도 피해 복구공사가 계속돼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피해복구 공사가 늦어진 이유와 공사 마무리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난 91년 공사가 중단된 교통 동양 오피스텔과 관련, 도시미관을 위해 채권단과 협의해 속초시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홍보관(아트빌딩) 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속초시의회가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보이고 있다.

김강수 의원은 △지역경기 회복과 소아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설악동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청초호 마리나시설,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아쿠아리움 유치, 해양심층수개발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견해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장재환 기자

## “유기물 유입 막고, 저습지 준설 피해야”

원주지방환경청 주최 동해안 석호 보전 심포지엄 열려

동해안 석호 보전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12일과 13일 속초시 대포동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렸다.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종길 국회의원은 기초강연을

통해 “석호의 훼손원인은 유기물의 유입과 비과학적인 준설 및 개발을 꼽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식물의 이상번식과 호수생물의 서식공간이 변경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포호와 청초호에서 보듯이 석호의 저습지를 파헤치는 준설작업은 석호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철새를 쫓는 행위여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릉대 김일회교수는 생태계 보전방안으로 “석호 생태계의 필수 조건으로 해양동물 유입 원활화와 담수동물 생식 및 피난처 제공을 위한 유입하천 하구 보존, 축산폐수와 분뇨 및 생활하수 유입 등의 오

염물질 유입 차단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화호환경연구소 최광순박사는 “동해안 석호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와 담수가 혼재된 수역특성을 고려한 수질개선 방안 수립과 유역관리를 통한 오염원 저감, 지역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고명진 기자 mjg061@hanmail.net

# “한국 사람들 정 많아 좋아요”

## 갈릴리교회 외국인선원들과 친교...예배도 보고 체육대회도 하고

“속초에 와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매주 예배도 보고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지난 15일 오후 엑스포구장에서 만난 중국인 한족 외국인선원들은 속초갈릴리교회(담임목사 권태복) 교인들과 친선 축구대회를 가지며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다.

운동장에서 만난 중국인 선원들은 연신 중국말로 “운동장에 나오니 너무 좋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갈릴리교회는 이날 중국인 선원들에게 삼겹살과 삼계탕을 제공하며 초복을 맞아 한국의 초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갈릴리교회의 이 같은 봉사활동은 이도형 집사(48)가 조업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청호동에 마련된 외국인선원

복지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선원들에게 한국문화를 가르쳐주고, 따뜻한 이국의 정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다.

현재 게통발과 오징어 채낚기어선, 속초~나진항을 운항하는 중국 상선에서 선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한족 137명과 베트남인 2명 등 139명의 외국인선원은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에 참가하고 있다.

갈릴리교회는 이들 외국인선원들에게 지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설악산과 미시령 일대를 탐방하는 친교회를 가졌고, 매주 일요일마다 엑스포축구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열고 한국음식을 제공해 오고 있다.

또 올해 23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중국인 선원을 위해 임금체불 해소에 나서 중국인 선원들과 우애를 돈독히 하기도 했다.

갈릴리교회는 중국인 선원들을 위한 중국어 예배시간을 마련한데 이어 조만간 한국어교육반도 열어 이들이 한국생활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홍성만 해외선교부장은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9051@hanmail.net



지난 15일 엑스포구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마치고 상징탑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 속초, 오징어 물량 확보 비상

## 어황부진으로 맨손잡기 축제 사용량 부족...가격 폭등 우려도

본격적인 오징어 성어를 맞이하고도 어황부진으로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준비중인 마을 청년회 등이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속초수협에 따르면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이 시작되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잡힌 오징어 어획량은 7만 3,000여급(급당 20마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여급보다 5만여급이 감소했다.

특히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이번주에도 오징어 조업부진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가격마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각 마을 청년회 등이 오징어 조업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8일 ~ 다음달 3일까지 영랑동 사진항에서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인 영랑동장사청년회는 오징어 물량부족을 대비해 다각적인 물량확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영랑동장사청년회는 축제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0~800여명의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매일 1,200급씩 모두 8,000여급의 오징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징어 조업 부진으로 물량이 크게 부족하는데다 지난해 급당 2만원에 구입했던 오징어가 현재 6만원~7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축제를 앞두고 가격 폭등에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오징어 물량확보작업에 나서는 25일부서는 채낚기어선들이 정상조업에 나설 것으로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으며, 조업부진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오징어 중매인을 통해 주문진 등에서도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유종원 영랑동장사청년회장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축제 개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조업부진으로 가격이 폭등할 경우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 인문계 전환 도교육감과 간담회 가져

## 속초상고총동창회, 설악고로 교명 변경도 건의

속초상고총동창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19일 오후 속초청해학교 교장실에서 최영수 회장과 임동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진들과 정문현 국회의원, 이병선·김시성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장수 교육감과 인문계 2개 학급 전환과 교명 변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속초상고 총동창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실업계(전문과) 6개 학급 중 2개 학급을 인문계(보통과)로 전환하고, 교명을 설악고등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속초상고는 2005학년도에 처음으로 인문계 3개 학급이 편성됐으며, 현재 1학년의 경우 인문계 4개 학급, 실업계 6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다.

총동창회는 간담회에서 “현재 80%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위해 인문계 전환이 시급하며, 교명도 인문계 학급이 있고 상과 계열이 없는 상황에서 상업고등학교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인문계 전환과 교명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수 교육감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실업계발전자문위

# “피서철 정상영업 후 노사협상을”

## 금강택시 사태 청와대 이동기 행정관 중재 나서



청와대 이동기 행정관이 지난 16일 고성군을 방문해 금강택시 노사갈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고성 금강택시가 사납금 문제로 노사갈등이 깊어지면서 노조원들이 2개월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지난 9일 이 문제를 대통령비서실에 건의함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가 사태 해결을 위해 고성을 방문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청와대 민원제도 혁신비서관실 이동기 행정관이 금강택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사측의 승무정지로 차량운행을 못하고 있고, 사측이 2년간 무자격자를 고용해 운행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온적이라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기 행정관은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지역에서 대중교통 민원도 제기돼 직접 방문하게 됐다”며 “노조측과 사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절충안을 만들어 대화로써 윈윈한 타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행정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시철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에게 “피서철 성수기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회사측에 일단 승무정지를 풀고 조합원들을 복귀시키되, 노사협상은 피서철이 끝난 후 행정이나서 빠른 시일 내에 윈윈한 타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수 기자

# 피서철 사고발생 잇따라

## 낙산서 대학생 1명 바다에 빠져 사망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양양지역에서 물놀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피서철 안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1시 45분께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취중에 바다에 들어갔던 대학생 최모씨가 해수욕이 금지된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수영을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또 이튿날인 16일 자영계 양양 현남면 남해 1리 경로당 앞 해안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했고 함께 타고 있던 박모씨(여)는 다이버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김주현 기자

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창회 관계자는 전했다.

동창회 관계자는 “이달 27일 실업계발전자문위가 열리고, 인문계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은 10월경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장재환 기자

# 해수욕장 바닷모래 깎이고 쌓이고 '진땀'

## 속초, 해안침식으로 수심 깊어져...외옹치, 모래퇴적에 다시마까지 밀려와

속초시와 외옹치마을 주민들이 해수욕장 개장 이후 피서경기를 크게 위협하는 해안침식 및 바닷모래 퇴적 퇴적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와 외옹치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개장에 앞서 평탄작업을 끝낸 속초해수욕장의 백사장 일부가 지난 10일과 11일 발생한 높은 파도로 쓸려 내려가는 해안침식 현상이 발생했다.

또 외옹치해수욕장은 이번 파도로 바닷모래가 또 다시 밀려오고 50톤 정도의 다시마가 백사장으로 올라와 마을 주민들과 군장병, 공공근로 참가자들이 16일까지 때아닌 다시마 수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해안침식과 바닷모래 퇴적현상으로 속초해

수욕장의 경우 수심이 깊어져 인명구조요원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익사사고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웠고, 지난 16일 개장한 외옹치해수욕장은 18일 현재 바다에 안전망도 설치하지 못해 피서객들에게 바다 가까이서 물놀이를 즐길 것을 당부하느라 관계자들이 진땀을 흘렸다.

이에 따라 시는 파도가 잔잔해진 지난 18일 새벽부터 포크레인을 동원해 행정봉사실 앞 백사장을 중심으로 정지작업에 나섰고, 지난주까지 백사장의 모래를 바다로 밀어 수심을 낮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외옹치해수욕장도 지난주 시로부터 포크레인을 지원받아 백사장 평탄작업과 안전망 설치작업을 마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불청객인 바닷모래 퇴적현상이 사라지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김성용 외옹치해수욕장 관리소장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백사장 평탄작업을 모두 마쳤는데 높은 파도로 또 다시 평탄작업을 벌이게 돼 울여름 똑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안침식으로 한때 인명구조요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다"며 "울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높은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c9051@hanmail.net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에서 백사장 평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성군이 올해부터 추진한 도원저수지 굴곡개선사업이 빈축을 사고 있다.

# 고성 도원1리 주민들 군도6호선 확포장 요구

고성지역 마을관리 휴양지로 잘 알려진 도원1리 주민들이 마을을 통과하는 군도 6호선 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급한 군도 6호선 도로는 놔두고 고성군이 민원도 제기하지 않은 도원저수지 도로(군도 6호선) 굴곡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도 6호선은 아아진 ~ 흘리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현재 아아진 ~ 도원1리 마을 앞(매표소)까지만 확포장이 이뤄진 채, 마을 통과 구간은 10년 가까이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폭 3m의 협소한 비포장도로로 피서철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협소해 차량 한대가 겨우 빠져 나갈 정도다"며 "피서철만 되면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현상으로 되돌아가는 피서객이 발생하는 등 지역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은 외면하고, 시급하지 않은 도원 저수지 도로 굴곡개선사업에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올해 21억원을 들여 오정리 진입로, 인정리, 신평리, 도원리 등 총 4개소 1.65km 굴곡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도원리는 주변이 저수지 추락 위험이 높아 군도 개선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고성 클레이 사격장 건립 논란 일단락

## 고성군 관련업체 · 주민 간담회 다른곳 물색키로...현부지에는 공설운동장 조성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해온 고성 토성지역 클레이 사격장 조성사업이 해당업체가 사격장을 다른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고성군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성경찰서에서 황병구 고성부군수와 김춘섭 고성경찰서장, 김재봉 진흥레저(주)회장, 김주석 대순진리회토성수련원장, 양호순 신평1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클레이 사격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성군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진흥레저가 클레이 사격장을 현 부지에서 이전한다면 새로운 조성지에 대한 행정 편의를 약속했다.

군은 또한 진흥레저가 지난해 골프장 증설 후 지역발전

을 위해 조성해주기로 약속한 토성 공설운동장을 현 클레이 사격장 부지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봉 진흥레저(주) 회장은 "그 동안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투입돼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업체라는 취지를 살려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며 "특히 내년 고성의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클레이 사격장 부지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끌어오던 클레이 사격장 관련 민원은 일단락됐다. 한편 진흥레저는 다른 부지에 클레이 사격장 부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수 기자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자문위원(가나다순)

<p>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복지학교</li> <li>② 부모와 함께 하는 복지교실</li> <li>③ 청소년 봉사 왕 선발대회</li> <li>④ 사회복지아카데미</li> <li>⑤ 복지포럼</li> <li>⑥ 속초 한 가족 돕기 운동</li> </ul> <p>◆계좌번호 : 251-01-347570(은행명 : 농협, 예금주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p> <p>◆후원품은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겠습니다.</p> <p>※영수증이 발급되며 세법상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문의 : 033)633-1363, FAX: 033)633-13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사회복지인 한마음 대회</li> <li>⑧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연사랑 대회</li> <li>⑨ 북한 동포 돕기 운동</li> <li>⑩ 복지인 신년 인사회 등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상철(마레몬스호텔총지배인)</li> <li>* 김성근(시의원)</li> <li>* 김시성(도의원)</li> <li>* 김용한(시각장애인연합회장)</li> <li>* 김일권(태평양약국대표)</li> <li>* 김재기(진수산사장)</li> <li>* 김진기(시의원)</li> <li>* 김현달(동명마을금고이사장)</li> <li>* 김희근(변호사)</li> <li>* 박주영(농협속초지부장)</li> <li>* 박태훈(한의원원장)</li> <li>* 박흥수(미시령관동로본부장)</li> <li>* 서명석(속초병원장)</li> <li>* 서인준(트리토네마린사장)</li> <li>* 손웅경(손의원 원장)</li> <li>* 안경민(치과원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창덕(현대치과원장)</li> <li>* 유왕재(보건약국대표)</li> <li>* 윤덕주((주)대양부장)</li> <li>* 윤의구(태영수산사장)</li> <li>* 장구봉(보고건설사장)</li> <li>* 정동만(도마횟집사장)</li> <li>* 정성웅(영동가스사장)</li> <li>* 정형민(설악신탁이사장)</li> <li>* 조광홍(파크호텔총지배인)</li> <li>* 조동룡(변호사)</li> <li>* 최돈표(DC 타이거대표)</li> <li>* 최상헌(통일스텐사장)</li> <li>* 최평규(대명종합건설사장)</li> <li>* 한상기(속초새마을금고전무)</li> <li>* 허병호(우리은행지점장)</li> </ul>
--	--	--	--

**사회복지법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 “설악동 B·C지구 선매입후 개발해야”

## 설악동 재개발비대위 탄원서 보내 “3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

설악동 상인들은 재개발 추진시 정부에 B·C지구 일대에 대한 ‘선 매입, 후 개발’ 방식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설악동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설악동 C지구에서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정부에 이같은 방안의 수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 78년 정부 주도로 설악동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 후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 규제로 B·C지구 일대 숙박업소와 상가들이 3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이 일대가 시설 낙후화로 황폐화 위기를 맞고 있

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설악동 재개발 추진시 B·C지구 일대 숙박 시설과 상가에 대한 ‘선 매입, 후 개발’이 도입돼야 하고, 30여개 상가 및 숙박업소 세입업주들도 영업보상 차원에서 이같은 방식의 재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설악동 제1~3집단지구(지구)를 각각 자연, 휴양, 건강, 여가, 위락 등의 지역으로 특화해 개발하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계획 최종 보고서를 마련,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지난 2005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3집단지구(E·F)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의 신청서를 반려,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도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오는 2012년에 설악동재정비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올들어 3~4개 숙박업소가 영업난으로 경매에 넘어간데 이어 3~4개 업소도 경매절차를 밟고 있어, 현재의 재정비사업 일정으로는 설악동 숙박업소와 상가들의 출도산이 우려돼 ‘선 매입, 후 개발’ 방식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악동의 경우 현재 전체 80여개 숙박업소 중 56개 업

# “세무 민원 집에서”

## 속초세무서 홈택스 서비스

속초세무서(서장 권오철)가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와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 증명 등 33가지에 이르는 민원증명서를 신청하고 PC로 출력,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과 지급 조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가입 용번호(신고안내문, 휴대전화로 받은 번호) 또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문의: 639-9221, 가입: www.homwtax.go.kr〉

이우철 기자



설악동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소가 휴폐업 상태에 놓여 있고, 상가는 164개소 중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28%인 46개소에 불과하다.

박종호 비대위원장은 “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정부 각 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설악동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9051@hanmail.net

# 양양 ~ 장춘 전세기 모객율 60%대

## 정기노선 확대 어려울 듯...인천공항 서도 운항 모객율 떨어져

지난 22일부터 운항에 들어간 양양 ~ 중국 지린성 장춘간 전세기 노선이 모객율 저조로 정기노선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8월 19일까지 총 8회 왕복 16편이 운항하는 장춘 노선은 모객율이 60%대에 불과해, 정기노선으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지역 여행사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모객율이 60%에 불과하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정기노선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품 개발과 항공수요 예측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춘노선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운항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도내 모객만으로는 활

성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인천 노선에 비해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도 모객율이 높지 못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내 여행사들은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전세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이 개발돼야 하고, 가격경쟁력도 확실한 우위에 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장춘노선이 모객율이 높지는 않지만 백두산과 연계한 상품으로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운항실적을 분석해 향후 노선유지나 정기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 2007

# 장사항(사진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영랑동 장사항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동해의 싱싱한 오징어를 맨손으로 잡아 회로 맛보고, 어선무료승선 체험을 통해 올여름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일시 : 2007년 7월 28일(토)~8월 3일(7일간)

□ 장소 : 영랑동 장사항(사진항)해변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영랑동 장사청년회



# 봉수대해수욕장 개장은 했는데...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 '어수선'

오토캠핑장과 바다레프팅 대회 등으로 많은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 봉수대 시범해수욕장이 지난 13일 개장했으나, 관리사무소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6월경 1억 4,000만원을 들여 봉수대해수욕장 내 2만 8,460㎡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28.4㎡ 규



고성지역 해수욕장 개장이 2주가 지났지만 봉수대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모로 행정봉사실과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갖춘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장한지 2주가 넘도록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신축 건물은 겨우 외형만 갖췄을 뿐 실내의 인테리어와 전기, 통신 등의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신축 공사로 인해 봉수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각종 벽돌과 건축 폐자재 등이 곳곳에 널려있고, 사용하다 남은 해수욕 안전 부표도 버려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장마철이고 학생들도 방학하지 않아 아직 피서객이 많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이달말까지도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것 같아 제대로 해수욕장 운영이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 레저업체 관계자는 "21일부터 바다레프팅 단체 고객 4,000명이 예약돼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유치하기가 민망스럽다"며 "바다레프팅으로 유명한 봉수대해수욕장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장마철로 공사가 다소 지

## 양양군 2/4분기 이차보전 실시 4천2백만원 투입, 추가신청 접수

양양군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4분기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5개 업체 중 추가 신청을 받아 군비 4천2백만원을 투입, 대출금의 이자 3%를 3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소상공인은 5천만원, 공장등록업체는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업체다. 김주현 기자

연된 것 같다"며 "본격적인 피서철이 7월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봉수대해수욕장의 해안 침식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m에 가까웠던 백사장 폭이 현재는 10m 가량으로 크게 줄어 행사장 부지가 협소해진 관계로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치러지는 전국 바다레프팅대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회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행사장 부지가 다소 협소한 면은 있지만 백사장 넓이에 맞게 행사장을 마련해 행사 개최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an92@goseong.org

## “오색 친환경 체류·체험 명승지로 재정비”

### 강원도, 오색집단지설지구 재정비 중간용역 보고회

지난해 잇단 수해를 입은 양양 오색집단지설지구의 재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테마적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체류형 명승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오색집단지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관광공사와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남설악의 최대 관광지인 오색지역은 입지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용 및 보전방안을 강구, 침체된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명승지가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

다.

이를 위해 오색지구는 가족단위와 실버층을 겨냥한 옐로우 존(Yellow Zone)과 산림욕 및 숲 체험 광장 등 자연경관의 생태시설이 갖춰진 블루 존(Blue Zone), 상업시설 재정비 구역인 레드 존(Red Zone), 이벤트 마당과 걷고 싶은 거리 등 이벤트 구역인 블랙 존(Black Zone),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유보지 확보구역인 화이트 존(White Zone) 등 5개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강원도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 계획을 수립, 상업시설은 단기적으로 기존 상가를 재정비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상가수를 축소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산림문화시설과 노인휴양시설, 조경휴게지를 조성

하고, 숙박시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천시설에 장기적으로 실버휴양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주차장은 성수기를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고 동선은 차량과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를 겸한 주민설명회에서 홍창해 오색2리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 고려하면서 오색만이 지닌 특화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상가들이 가장 밀집된 일반상가의 경우, 공유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정비를 위한 소유주들의 동의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에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오색집단지설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43억여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강원도는 연말까지 1~2회의 추가 보고회를 가진 뒤 최종 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뒤 설악산 국립공원 변경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공무원 6백여명 배출(군수, 시·군의회 의장 포함), 사회복지사 1천명 양성(영동권 최초)  
건강가정사 114명 양성(강원도 최초), 매년 100%에 육박한 취업률...**

# 이제부터 도지사에 도전합니다!

- 수시 1학기 모집기간: 2007. 7. 12(목) - 7. 20(금)
- 합격자발표 : 2007. 7. 27(금)
- 모집인원

구 분	정 원	주 간	야 간
복지행정학부	사회복지전공	160	80
	일반행정전공		

### ■ 접수방법 및 준비서류

- 준비서류: 입학원서 1부, 재직증명서 1부(공무원, 군인, 경찰, 직장인, 주부 등)
- 접수방법: 본 대학 홈페이지(<http://www.duc.ac.kr>) 또는 직접 접수 (복지행정학부 위치: 본관 2층 3209호실)

### ■ 전형방법: 내신 100% 반영(※ 수능성적과는 무관합니다.)

항구적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합니다!!!



27년 전통의  
동국대학 복지행정학부

School of Social Welf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기획취재/설악권 해양심층수산업화의 허와 실

일본 해양심층수 산업의 발전과정

# 지역발전 견인차...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각광

## 초기 연구단계 중앙정부 주도 → 실용화단계 지방정부 주도... 고치현 작년 1,013 억원치 판매

환경오염과 자원 부족으로 고민하는 인류에게 바닷물의 95%를 차지하는 해양심층수는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을 가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은 미국으로 역사가 30여년에 달한다. 특히 하와이주는 해양심층수로 연간 4,000만달러 이상의 실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90년 후반부터 해양 심층수 이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80년대 최초로 고치현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이 시작된 이후 토야마현, 오키나와현, 북해도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연구 및 취수가 행해지고 있다.

해양심층수 개발 및 실용화의 본 고장이자 할 수 있는 일본 고치현의 해양심층수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일 경동대 어재선 교수와 취재팀은 일본 고치현으로 향했다.

일본 고치현 중에서도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와 아쿠아팜(해양심층수 취수시설)이 있는 곳은 무로토시다. 우리는 무로토시로 향하기 전에 일본 해양심층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고치현청을 우선 방문했다.

### 지방자치단체 주체, 중앙정부 보조

국토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풍부한 해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해 왔다. 특히 해수자원 중

### 글 쓰는 순서

- ① 동해안 해양심층수 산업의 현주소
- ② 일본 해양심층수 산업의 발전과정
- ③ 일본 최초 해양심층수 개발 고치현
- ④ 해양심층수 산업화의 모델 가나가와현
- ⑤ 일본과 비교해 본 설악권 심층수 산업
- ⑥ 설악권 해양심층수 산업화의 과제

에서도 해양심층수가 지닌 우수성에 착안해 일찍부터 개발을 서둘렀으며, 그 결과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사업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각광받게 됐다.

일본에서의 해양심층수 산업화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초기단계, 기초연구단계, 실용화연구 단계 및 성과확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 및 개발의 흐름은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실용화의 단계가 고도화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로, 그리고 민간에게로의 연구개발이 이전돼 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실례로 1976년부터 과학기술청(현 문부과학성) 산하의 JAMSTEC(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에서 심층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해양심층수 개발개념을 정립했으며, 1986년 이후에는 과학기술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구기반을 조성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1986년부터 1991년



고치현 무로토시에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취수 분수시설인 아쿠아팜의 주변에 공업단지가 형성돼 있어 많은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까지 추진된 과학기술청과 지방자치단체 즉, 고치현과 토야마현이 참여한 아쿠아마린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해양심층수 자원의 유효이용기술에 관한 연구' 모델해역으로 무로토시의 미사키 해역이 지정됐다.

1989년도에는 과학기술청과 현의 공동 사업으로 육상형 취수장치가 완성됐고, '고치현 해양심층수연구소'가 개설됐다. 이때부터 과학기술청, 고치대학, 학계, 기업 등이 연합해 수산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그 이후에는 JAMSTEC가 지방정부 및 민간과 연대해 기반조성 및 실용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1995년에는 심층수의 분수권이 과학기

술청에서 현으로 양도돼 민간기업에 분수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유료분수를 위한 '아쿠아팜'이라는 취수시설이 증설되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이를 계기로 최초의 개발지인 고치현은 성공을 거두게 됐다.

고치현의 성공은 해양심층수에 의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토야마현, 오키나와현, 시즈오카현 등이 이에 고무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2007년 현재 16개 지구에서 하루 5만여톤 이상의 해양심층수를

▶ 11면에 이어짐

정직과 신용을 안고 좋은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 설악산 고속관광 여행사

## 자동차의 모든 것 여행의 모든 것

렌트카 대여, 전세버스, 국내여행  
금강산관광, 울릉도관광

### 속초시 조양동 1427-3 속초해수욕장 입구

■전세 버스사업부 T. 635-7100 ■관광 사업부 T. 635-8300 ■렌터카 사업부 T. 635-0050

▶ 10 면에서 이어짐

가 취소되고 있다. 16개 취소지구 중 13개는 지자체가, 나머지 3개는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개발 · 취소 관련법을 따로 없어

일본은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된 별도 법령이 없고, 취수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다. 다만 취수를 위한 해상구조물, 부표, 해저에 부설하는 취수관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어업법,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 신고, 동의, 승낙 등을 득해야 한다.

상품개발에 관련된 법령도 기존 관련법에 따르고 있다.

최근 해양심층수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1996년 6월 고치현의 해양심층수가 위생성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로서 인가받은 것을 계기로 해양심층수를 음용수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어 200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용 해양심층수의 표시에 대한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심층수의 상품화와 관련된 최초의 규정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 심층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수면허를 해수부

로부터 득해야 하고, 업체에서는 수익 없이 취수만 하더라도 취수료, 용수료, 수질 개선분담금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해야 해 일본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큰 편이다.

고치현은 인구가 80만명이며, 산림면적이 총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제재와 목제품의 공업, 농업, 수산업이 주류를 이뤄 강원도와 흡사하다.

1995년 심층수 분수권이 과학기술청에서 현으로 양도됨에 따라 고치현은 수산국을 해양국으로 고치고 실무부서인 '심층수 대책실'을 설치했다.

이때부터 심층수를 이용한 물사업 즉, 상품화가 본격 시작돼 새로운 산업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어 고치현은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99년에 해양심층수 기업클럽을 설치(기업 65개사 참가)하는 동시에 고치현 해양심층수연구이용촉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현·시·기업의 연대시스템이 구축됐다.

심층수 사업의 활성화로 무로토시에 설치된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 하루 1,000톤의 심층수량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 2000년 정부(50%)와 현(20%), 시(30%)가 나서 하루 4,000톤 규모의 취수시설인 아쿠아 팜을 연구센터 인근에 조성, 해양심



고치현청 해양심층수대책실 직원들과 취재팀이 일본 해양심층수 산업화 과정을 취재하고 있다.

층수 산업을 본격화 한다.

고치현 심층수관련 기업클럽 118개사 가입

이로 인해 심층수관련 기업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은 처음 65개사에서 2007년 현재 118개사로 증가됐다.

현재 해양심층수 생수를 비롯해 간장, 술, 과자, 소금, 두부, 화장품 제조 등 300여종에 이르는 상품을 개발, 시판하고 있으며 수산증양식, 농업 분야에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 목욕, 취사 등의 생활용수로 심층수(원료) 및 탈염심층수가 판매되고 있다. 고치현청 관계자는 "심층수 제품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에는 해양심층수 붐이 일어 고치현의 심층수 관련업체들이 연간 150억엔 이상의 제품 판매고를 올렸지만 거품이 모두 빠진 현재는 130억엔대로 지난 2006년 135억엔(한화 1013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 히로아키 이토우 고치현청 해양심층수 대책실 팀장

“고용인 1천명 창출...학문적 연구 중요”



히로아키 이토우 고치현청 해양심층수 대책실 팀장(사진)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성장세를 거듭하며 각종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며 “지역의 소득 뿐 아니라 118개 업체 유입으로 1,000명의 고용인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심층수 붐이 일었던 지난

2000년 산업화 시작 초기보다 2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한 이후 최근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는 ‘학문적 연구 성과’ 없는 무차별적인 산업화 때문이다”고 말했다.

일본 해양심층수 관계자들은 이처럼 해양심층수 상품의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수 기자

전문가 인터뷰 / 취재 동행 경동대 어재선 교수

“기반연구와 산업화 양면 추진 필요”

어재선 경동대교수는 “일본 코우현의 해양심층수 이용은 기반 연구와 지역 산업화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추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 교수는 “고치현청은 해양심층수 대책실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기획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화하기 위한 투자유치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속에서도 해양심층수 산업 붐이 식으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다”고 말했다.

어 교수는 “우리나라도 해양심층수 개발이 성공적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기반연구와 산업화의 양면 추진이 필요하고, 산·학·관 그리고 시민과의 공동대 형성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기자



**HACCP 적용 축산급식 가공센터...최고의 시설, 최상의 청정고기**

**(주)신선나라 설악송이포크**

설악의 자연 송이와 청정 양양의 돼지가 만났다... 설악지역 양양 양돈단지의 청정돼지를 독점공급받아 HACCP를 적용한 최고의 시설에서 생산하는 설악송이포크의 맛을 중간유통 없이 우리지역에서 맛보십시오.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62-35 ☎(033)671-1503~5

공급처 : 학교 · 관공서 · 군부대, 농 · 축협, 정육점, 할인마트, 콘도, 호텔 등

# “타임머신 타고 선사시대로 떠나요”

##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26일 개관...선사인들 생활체험, 유물·유적 탐방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선사시대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국내 최고(最古)의 선사유적지인 양양 오산리선사유적지에 건립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 등록을 마치고, 오는 26일 개관한다.

이일형 양양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개관으로 주민들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이 생생한 선사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사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생생한 유적지 현장과 유물과의 만남을 통해 선사시대 생활상을 배울 수 있는 △선사 이야기 △토기 발견 △영동지역 선사문화의 이해 △'어! 쌍호의 수초섬이 이동하네' 등 4개의 테마 존으로 이뤄졌다.

도입부는 종합안내와 전망·휴게공간으로 활용되며 관람객들에게 선사시대로의 체험여행을 안내하는 곳으로, 유적발굴사와 발굴 당시 유적지 모습을 사진 그래픽 형식으로 전시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오산리선사유적지의

발굴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입구에는 또 선사시대 토기를 맞춰보는 퍼즐도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선사이야기’ 존은 선사인들의 어로·주거활동, 수렵·농경·채집생활이 국내 최초로 1대 1 크기의 디오라마로 잘 연출돼 다른 선사유적박물관과 차별성이 눈에 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디지털 검색기를 통해 유물과 생활상 등 다양한 선사인들의 생활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기 발견’ 존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오산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용기문토기를 비롯해 빗살무늬토기, 압인문토기 등 신석기시대 토기의 발견에서 발달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영동지역 선사문화의 이해’ 존은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신석기와 청동기, 철기시대의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영동지역 선사시대의 생활모습을 유물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 쌍호의 수초 섬이 이동하네’ 존은 박물관 앞 쌍호에 있는 3개의 수초 섬이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호수가 발



오산리선사박물관의 '토기 발견' 존은 선사시대의 각종 토기들이 전시되어 교육의 장으로 그만이다.

생하면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50m를 이동하는 장관이 연출된다. 이런 기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때만 잘 맞추면 직접 이동하는 광경도 볼 수 있다는 게 박물관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이달 말부터 읍집 등 야외체험장 조성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 77년 쌍호 매립과정서 발견...2003년 박물관 공사 착공

## 오산리 선사유적지 발견에서 박물관 개관까지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지난 1977년 봄, 양양 오산리 쌍호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토사채취 중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 조사결과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경합식 어구와 토기, 석기, 흑요석을 비롯해 신석기인들의 예술적 관심을 추측케 하는 유명한 토기인면상 등 다양하고도 희귀한 유물 350점과 14기의 원형 집터, 소 활성유구가 발견돼 선사시대의 보고로 학계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어 출토유물과 방사성연대 측정결과 BC 6000년대 유적으로 확인돼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기원을 해명하고, 주변지역과의 문화적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

적으로 평가돼 사적 394호로 지정됐다.

유적발굴을 주도했던 임효재 서울대 교수는 “오산리 유적은 기존에 동북아에서 발견된 유적보다 2000년이나 앞선 8000년 전 신석기 유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고고학의 일부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고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구성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양군은 호수와 바다, 주거지, 채집생활 등 신석기 시대의 다양한 생활환경이 공존했던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93년 국도비 1백 99억여 원을 투입,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개관식을 갖게됐다.

군은 박물관을 교육기능에 오락적 기능까지 담아 국내



선사유적박물관 앞에는 코스모스 등 산책길이 있어 휴식을 취하며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꽃길도 조성돼 있다.

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양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홍보하는 관광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동자동차 공업사

**주요 업무**

1. 경정비 일체
2. 판금, 열처리도장 전문
3. 정기검사(승용차전차량, 1톤화물, 9인승이하 승합)
4. 중고차량 성능검사
5. 24시간 견인대기

**협력 업체**

- 엘지화재 매직카비스
- 엘지화재 우수협력업체
- 현대대상 우수협력업체
- 동부화재 우수협력업체
- 교원공제 에듀케어서비스
- 제일화재 OK 서비스
- 쌍용화재 마이카서비스
- 신동아화재 마스터카서비스
- 메리츠화재 Readycar 서비스
- 그린화재 에이스카서비스
- 개인택시 공제 견인서비스

## 영동자동차 공업사

속초시 조양동 1424-1 (웰컴콘도 옆)  
대표 김명동 Tel. 033. 632-1198, Fax. 637-7977

# “장애인이 만족하는 특수교육 돼야”

## 정문헌 의원 주최 ‘지방특수교육의 과제’ 토론회

속초에서 지방 특수교육의 과제에 대한 전국 규모의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국회교육위원회) 주최로 지난 19일 오후 2시 속초 청해학교에서 한장수 교육감과 이효자 국립특수교육원장, 조윤신 속초청해학교장, 시·군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지방특수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해동 백석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상화(normalization)일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높고 생활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의 능력과 특성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개별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지역사회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전문인력 보강, 특수교육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추연구 춘천교육대학 교수는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복지과 인권 보장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여져 장애인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특수교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



지난 19일 속초 청해학교에서 장애인 특수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병운 공주대 교수의 사회로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 장성집 춘천동원학교장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의 큰 기틀은 마련됐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는 시행령 등 체계적인 하위 규정 마련과 특히 지역 수준의 특수교육을 공고히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령 예정이다. 장재환 기자

# 권금성, 역사적 사실 밝힌다

## 속초시 권금성 규모·축조시기 등 학술용역 계획

속초시가 권금성의 정확한 규모와 축조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학술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위치하고 있는 권금성의 규모와 축조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문화재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정밀 지표조사가 마무리 되면 문화재 지정 추진 및 발굴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권금성은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337m)이고 높이는 4척(1.2m)이며, 지금은 반쯤 무너진 상태이다.

권금성은 전설에 따르면 속초지역에 살던 권장사와 김장사가 병란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피난한 곳으로, 두 장사가 의논해 서로 번갈아 가며 시냇가에서 돌을 날라 밤새도록 성을 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 중엽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금성은 몽고군이 동해안으로 침입했던 1253년(고려 고종 40년)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권금성은 지금까지의 기록 등으로 볼 때 전란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성내에서 출토되고 있는 기와류의 형태와 연대가 양양 진전사지의 유물과 유사해 사찰방어 형태의 성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록과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는 권금성의 정확한 축조시기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 및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0951@hanmail.net

# 제2회 천년의 신비 고성해양심층수 체험축제

◆일시 : 2007. 8. 2(목)~8. 5(일)  
◆장소 : 고성군 죽왕면 오희리 송지호해수욕장 일원

- 주최 : 고성군
- 주관 : 해양심층수축제위원회(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심층수연구센터)
- 후원 :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설악신문
- 주요행사 : 해양심층수 테라스테라피, 해양심층수 미네랄워터 well-being bar, 해양심층수 마린파크, 해양심층수 체험 이벤트, 해양심층수 관련 홍보 등

---

## 2007 바다래프팅 전국대회

2007 Searafting Wildbeach Championship

2007. 8. 7(화) ~ 8. 8(수),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 해수욕장

### 대회 일정

문의전화 :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033)630-3351, 3352

**8월 7일(1일차)**

**|이벤트 행사|**  
14:00 ~ 18:00 씨카약 무료강습, 래프팅 무료강습  
윈드서핑 무료강습, 수상스키 무료강습  
맨손활어잡기

**|래프팅 대회예선|**  
18:00 ~ 18:40 마스터즈 부문예선

**|공식 행사|**  
18:40 ~ 19:00 식전행사  
19:00 ~ 19:30 개회식  
19:30 ~ 21:30 전야제

**8월 8일(2일차)**

**|대회진행|**  
09:00 ~ 18:00 래프팅 대회  
11:00 ~ 12:00 카약 대회

**|시상식|**  
18:00 ~ 18:30 시상 및 행운권 추첨

설악권의 분단과 냉전의 기억 9

냉전이 빛은 최악의 굴레, 납북어부 <마지막회>

# 공권력 인권유린 사죄없이 위로금지급 법률제정

진실규명 · 정신적 피해보상 없어 ... 국가 · 지역사회가 나서 응어리진 한 풀어줘야

## 납북어부 문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납북어부의 문제는 60,70년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다. 아직도 4백 85명의 납북자가 송환되지 못해 가족들을 애타우고 있으며, 송환어부들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과 간첩조작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납북어부 송환은 남북한의 냉전 종식과 화해, 평화정착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공권력에 짓밟힌 송환어부의 인권문제는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 납북자 생사확인 과 송환 큰 진척 없어

2천년대 들어서 미귀환 납북어부들의 송환요구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미송환납북어부 가족들은 단체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생사확인 과 송환을 요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납북이라는 표현조차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생사확인 과 송환운동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선피랍사건이 발발했던 70년대에 정부는 적십자를 통해 납북어부의 인도적 송환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에서는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납북자가 월선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거나 미송환어부가 자진하여 북에 남은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올해 4월에 열린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이 제기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별도상봉문제가 북한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2006년 이산가족 상봉에서 1978년 고교생으로 납북된 김영남씨가 어머니와 상봉했을 뿐이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납북자 생사확인 과 상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률 주요내용

올해 4월 27일자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6개월 후인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 통일부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추가로 공포했다.

법률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미귀환

납북자의 가족,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를 납북피해자라 한다. (법률 제2조)

-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4조)

-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정착금과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 납북자의 보호 지원, 상이납북피해자 요양 및 장애등급 판정, 납북자문제 실태조사,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조사 및 보상 명예회복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법률 제6조)

-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는 정착여

- 정착금,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위원회에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2조)

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의 경우 최대 1억 4천만원의 정착금을, 미귀환납북어부 가족은 기본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4천 5백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보상금액의 윤곽이 나오자, 납북자 가족 단체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는 연좌제로 묶여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고통을 다 겪은 납북어부 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법률 제정이 납북어부 송환요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미봉

해진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해당사자는 몇 십년 동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침묵으로 살아오고 있다.

납북어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량한 어부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인권유린 실상이 낱알이 밝혀져야 한다. 진상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보상이나 위로금 지급은 그야말로 면피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의 굴레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예회복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해당자료의 전면적인 공개와 재조사가 필요하다. 당시 인권유린에 가담했던 군과 경찰, 검찰 등의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인권유린 자료를 그대로 묻어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규명의 결과는 충분히 언론 등을 통해 알려 납북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하며,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납북어부 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피해보상과 지원은 공권력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인 구제과정이 아니라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속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인 보상 신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수십년간을 공권력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몇십년 동안의 악몽을 떨쳐내고 하루 아침에 태도가 달라져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들이 겪었던 상처가 깊기에 그 치료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안내, 체계적인 법률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납북어부의 문제 해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냉전과 분단의식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인 설악권은 납북어부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응어리진 지역의 한을 풀 수가 없다. 지역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염경선 프리랜서 기자

※ 연재 '냉전이 빛은 최악의 굴레, 납북어부' 를 마칩니다.

“수십년간을 공권력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몇십년 동안의 악몽을 떨쳐내고 하루 아침에 태도가 달라져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의 및 생계유지 능력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하고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기본금 및 가산금,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8조, 시행령 제9조)

- 미귀환 납북자의 가족에게는 1,0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별위로금으로 전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3조)

-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에게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법률 제10조)

-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실질비용에 근거한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법률 제11조)

책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있다. 보상의 근거로 물질적 피해와 신체적 장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정신적 피해 등은 보상의 근거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피해보상의 수준을 최소화한 것이다.

### 공권력의 인권유린 진상부터 밝혀져야

한편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에 경찰이 구타와 고문으로 납북사건을 월선조업으로 조작하여 납북어부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한 태영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납북되었다 탈북 귀환한 이재근 등이 제기하여 북한에서 당한 납북어부 인권유린을 조사사건으로 결정했고, 7월에는 공권력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납북어부 서창덕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는 전체 납북어부의 인권유린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수의 납북어부들에게 가

# 북한 공훈예술가 김유동 유화작품 속초 전시

### 속초민예총, 제 11 회 통일문화제 일환 7~9일 엑스포 전시실서

북한 공훈예술가 김유동씨의 유화작품이 속초에서 전시된다.

민예총 속초지부는 다음달 7~9일까지 열리는 제 11 회 통일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엑스포 주제관 전시실에서 '북한 공훈예술가 김유동 유화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향의 달밤', '내 고향의 가을', '뫓 나무 숲', '금강산 계곡' 등 고향의 정취와 자연을 담은 유화 작품 28점이 선보인다.

1956년 평안북도 룡천군 산두리에서 인민예술가인 김장한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1980년 평양미술대학 회화 학부를 졸업하고, 철도미술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에서 전업창작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는 북한의 최고급 창

작사인 만수대창작사에서 유화창작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97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다.

1980년부터 베트남,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제미술작품전에 대표작인 '정전이 된 오늘에도' 등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친 김장한의 타계 3주기를 기념해 부친의 고향인 공주시에서 열린 추모작품전에 '향산의 아침' 등을 찬조작품으로 처음 출품했다.

한편, 올해도 강문영 상무 부주석 등 중국 훈춘시작가협회 소속 작가 4명이 통일문화제의 '시와 음악이 있는 한·중 문인 시낭송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달 6일 속초를 방문한다.

장재환 기자

## 김동선 양양문화회 부회장 '문학공간' 신인문학상 수상

(시부문)



양양문화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선씨(57, 사진)가 종합문예지 월간 '문학공간'의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김씨는 '꽃과 응시', '벚꽃·6', '현불사', '대청봉·2' 등 4편의 시로 문학공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문학공간은 심사평에서 "김동선의 시는 전체적으로 시어의 현학성과 눈부심, 수사의 화려함이나 기법의 뛰어난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다"며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는 물상을 서정성을 골격으로 형상화하는데 몰두하는 애쓰고 사물을 주의 깊게 응시하는 사유가 시적 매력이다"고 평했다.

김씨는 당선 소감에서 "신인상 당선 소식을 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며, 평소 격려해준 동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좋은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씨는 양양문화회와 물소리 시낭송회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김주현 기자



## 속초실비요양원서 도문메나리등 국악공연

민예총 속초지부는 지난 17일 속초실비요양원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도문메나리와 설악아라리 등 국악공연을 가졌다.

장재환 기자

# 속초, 색다른 여름추억 선사

###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 해수욕장 페스티벌 · 대한민국 음악대향연(8월 10~15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속초해수욕장과 청초호유원지 일대에서 여름축제가 잇따라 열려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여름추억을 선사한다.

속초예총과 속초민예총,속초문화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07 한여름밤의 문화축제'가 22일 ~8월 7일까지 청초호유원지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축제에는 전통 상설공연 및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한여름밤의 영화제, 테마별 음악공연 및 가족영화가 상영된다.

속초해수욕장에서는 27일 ~8월 5일까지 'BC 카드 2007 HOT Festival'이 개최된다.

이기간 동안 주간에는 다트게임과 룰렛, 림보 등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며, 야간에는 파워댄스, 7080 콘서트, 시네마, 장기자랑, 마술쇼, 밸리댄스, 락밴드 공연, 대금·가야금·산조 공연, 댄스경연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2007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다음달 10일 ~15일까지 청초호유원지에서 열린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Dream of Sokcho'라는 개막공연이 펼쳐지며, 11일에는 80·90년대 최고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8090 콘서트 '한여름밤의 추억 #1'이 공연된다.

12일에는 힙합과 락, 언더그라운드 등 매니아적 성향이 강한 퓨전음악 매니아 콘서트 'Music is Life'가 공연되고 13일에는 80년대를 대표했던 그룹사운드와 포크가수들의 인기곡 퍼레이드 7080 '한여름밤의 #2'가 펼쳐진다.

14일에는 댄스와 발라드, R&B 등 장르별 아이돌 스타들의 공연인 'Super IDOL', 15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가수 3인의 빅3 콘서트인 '세가지 소원'이 열린다.

고명진 기자  
mjg0051@hmail.net

# 범죄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일

전문상담·형사조정·의료지원·법률지원·수사기관  
법정동행지원·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곤란자 경제적 지원

법무부  
사단법인

##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T. 033. 638-1111

속초시 동명동 280-2 속초지청 정문 앞 동명빌딩 2층

강원도 다문화가족 합창경연대회 금상 수상 고우모도씨 가족(양양)

# “노래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요”

“넉넉지는 않지만, 우리가족은 노래로 행복을 만들어가요.”

일본에서 양양 손양면 상왕도리로 시집와 살고 있는 고우모도 치하루씨(41) 가족이 지난 10일 강원도가 주최한 다문화가족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노래로 가족의 행복을 쌓아가고 있다.

고우모도씨 가족은 이번 대회에 고우모도씨와 아들 교중이(손양초교 2년), 시어머니 이연형씨(76), 큰 아버지 김성암씨(54)와 부인 이마무라 히도미씨(50) 등 5명이 양양군을 대표해 출전했다.

춘천 한림성심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합창경연대회에서 고우모도씨 가족은 그동안 연습해온 트로트 가요 ‘자옥야’를 불러 금상을 차지했다.

평소 가족끼리 모이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고우모도씨 가족은 양양군 대표가족으로 선발된 뒤에도 하루 1시간 이상 테이프를 틀어놓고 연습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특히 시어머니 이연형씨가 노래를 좋아해 가족 모두가 노래로 행복을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고우모도씨 가족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지난 99년 고우모도씨의 남편이 사망한 것. 당시 아들 교중이를 임신중이었던 그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큰 충격을 이겨내고, 교중이를 반듯하게 키웠다.

일본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특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해 동네에서는 효부로 소문이 자



강원도 다문화가족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치하루씨 가족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치하루씨, 아들 교중이, 시어머니 이연형씨, 큰아버지 김성암씨, 성암씨 부인 히도미씨는 고향방문 중이다.

자하다. 큰아버지 김성암씨도 아버지가 없는 조카 교중이를 친자처럼 애지중지 돌보고 있다.

고우모도씨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어려웠지만 같은 일 본인 형님이 있어 위안이 많이 됐고, 특히 시어머니와 큰 아버지가 너무 잘 해주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합창대회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뻐다”고 말했다.

아들 교중이는 “처음에는 무대에 선다는 것이 무척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 재밌고 기분도 좋았다”며 “또 한번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빙그레 웃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순도순 서로를 의지해가며 화목하게 살고 있는 고우모도씨 가족은 노래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주현 기자

## 고성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정복희 담당

# 저소득층·장애인 등 866가구 건강책임



고성군보건소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복희씨(35, 사진)는 주위에서 ‘백의 천사’로 통한다.

가정전문간호사인 그는 의료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여성 이민자 등 총 866가구의 방문 계획을 짜고, 현장에서는 방문팀(의사 1명, 가정전문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 5명)을 진두 지휘하며 전신 드레싱(소독)을 도맡아 하고 있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힘이 납니다.”

정 담당은 진료계에 있다가 지난 3월 건강관리계 방문

팀이 꾸러지면서 자리를 옮겼다. 중증 환자의 경우는 수시 방문해 세심한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다소 병세가 약한 환자들은 한달에 5~6번정도 방문해야 한다.

오전 10시경부터 가정방문이 시작되면 전담팀은 식사도 거른 채, 오후 6시까지 중증환자들에 대한 혈압, 당뇨 등의 건강체크부터 소독, 치료, 투약상담관리와 의약품 배달까지 일일이 챙긴다.

정 담당과 팀원들의 노력으로 고성군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98.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정 담당은 “생활고에 시달려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팀원 전체가 수혜대상자 발굴에 나서 건강한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원장

# 장애인 아이스하키대회 열어

속초 출신으로 서울에서 강남베드로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윤강준 원장이 ‘제1회 강남베드로병원배 전국 장애인 아이스하키대회’를 개최,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으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내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청과 연세이글스, 레드볼스 등 3개팀 선수와 가족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강원도청이 우승, 연세이글스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선전을 펼쳤지만 순위보다는 장애인들이 아이스



제1회 강남베드로병원배 전국 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 끝난 뒤 빙상장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하키로 재활의지를 다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윤강준 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 행사가 장애인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 피서철 안전 점검이

# 김영관 낙산여름경찰서장 “안전한 피서지 노력”



지난 13일부터 낙산여름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관 경정(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피서객들이 설악권의 최대 해수욕장인 낙산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여름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3일까지 42일간 낙산여름경찰서장으로 임명된 김 서장은 총 42명의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순찰활동을 통해 피서객들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며 낙산해수욕장의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피서지 절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주요 해수욕장에 230개의 절도피해 예방 플래카드를 내걸고, 하루 5회 이상 방송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란행위나 호객행위 등 피서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청소년 보호활동에도 나서 낙산해수욕장이 안전한 피서지가 되도록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서장은 “친절한 치안행정으로 민원은 원활히 해결하고, 관광성 범죄는 강력히 단속해 아늑한 피서지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2년 속초경찰서를 시작으로 경찰에 투신한 김 서장은 고성과 인제 등 주로 설악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 속초소방서 119구조대 김만하 반장

# “안전사고시 응급처치 중요”



“자연에 맞서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다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속초소방서 119구조대 김만하 반장(41, 소방교, 사진)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해바다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아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설악산도 매년 조난과 추락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피서객들의 세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 반장은 “13명의 인원으로 속초, 고성, 양양지역을 담당하다보니,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반장과 속초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은 격일 근무를 서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 속에서 24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김반장은 지난 95년 강릉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3년 부터 속초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우철 기자



‘노래하는 경찰’ 이상명·상영 경사 무대에 서다

# 춘천 소극장서 7080 토크쇼 열어

##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노래하는 경찰’로 유명한 쌍둥이 경찰관 형제가 소극장에서 ‘노래하는 토크쇼’를 열어 화제다.

지난 2005년 음반제작 소식이 본보(2005년 11월 22일자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했던 이상명(45, 고성경찰서, 경사, 사진왼쪽)·이상영(45, 강원지방경찰청, 경사) 쌍둥이 경찰관이 지난 21일 춘천시 후평동 한 소극장에서 2회에 걸쳐 ‘추억의 가요로 꾸미는 노래가 있는 토크쇼’를 열었다.

경찰 정복을 입고 관람객을 맞이한 이들은 7080세대들이 옛 향수를 회상할 수 있는 포크송을 구성지게 부르면서 노래 중간마다 쌍둥이로서 겪을 수 밖에 없었던 해프닝 등을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또 최근 전국 경찰이 경직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설명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을 심어주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번 노래하는 토크쇼는 지난 2005년 앨범 제작에 참여했던 작곡가와 작사가의 제의와 동료 경찰들의 도움으로 이뤄지게 됐다.

처음 제의를 받을 당시 이들은 ‘직분을 망각하고 노래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거절을 했지만, 조직내에서도 ‘주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친근감과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에 힘을 얻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형 이상명 경사는 “처음에는 손님을 얹혀 놓고 과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며 “하지만 경찰도 일상생활에서는 주민들처럼 실수도 하며 똑같이 살아가는 동질감을 심어줄 수 있고, 경찰 이미지 개선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쌍둥이 경찰관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화진포해수욕장에서 공연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춘천경찰서 박성희 경위가 첼로를, 도경 정상천 경사가 영상을, 화천경찰서 이철원 경사의 딸 이한솔씨(한양여대 1년)가 보컬을 맡아 동료애를 과시했으며, 관람료는 전액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 ‘쌍마회’ 회장 윤광혁 청호동장

# 가정 형편 어려운 청소년 돕기 앞장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춧돌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속초시청 내 관동대학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쌍마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광혁 청호동장(51, 사진)은 바쁜 행정 업무 속에서도 폭넓은 봉사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쌍마회는 관동대의 상징물인 쌍마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2003년 쌍마회 결성 당시부터 줄곧 회장을 맡고 있는 윤 동장은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조부모에 위탁해 생활하고 있는 2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을 앞으로는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마회는 지난 2004년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집에 맡겨져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의 생활비로 매달 4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윤 동장은 비록 조그만 정성이지만,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현재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

또 쌍마회는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모와 살고 있는 여고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활동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윤 동장은 이러한 봉사활동 외에 앞으로는 시청 내 다른 봉사단체와 연계해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자연정화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 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활동은 22명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른 봉사단체와 연계해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9051@hammail.net

### 동 | 정 |

**박갑수 속초양양교육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속초 청해학교에서 열린 강원특수학교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춘섭 고성경찰서장**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경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 무궁화포럼을 열어 피서지 사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 등 치안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지난 20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양양예총 창립식에 참석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을 격려했다.



## 속초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 소식

www.sokchosanggo.com

속초시 교동 654-133(3층) T. 635-9546, F.637-9546

### ▶총동창회 하계휴양소 운영

- 1) 기 간 : 7월 7일(토) ~ 8월 19일(일)
- 2) 장 소 : 속초해수욕장내 백사장(조양동 한신아파트 맞은편)
- 3) 운영목적
  - 휴가철 고향찾기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과 솔선수범
  - 시정책에 호응하고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함
- 4) 문의처 : 총동창회 사무처(033-635-9546)

김정홍위원장(6기, 011-9790-7835)

※ 외지동창 및 총동창을 위하여 마련한 휴양소이오니, 지인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수 회장님 및 총무님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SBS 골프채널 2006-2007 시즌



— 8강전 상대팀 확정 : 서울 신일고교

7월 31일(화) 실크리버골프장(충북 청원 IC 근처)

— 참관 하실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사업자 동문께서는 명함 한 장씩 7월말까지 사무처로 접수주시면 감사합니다.

※ 속초상고총동창회 홈페이지(www.sokchosanggo.com) 많은 이용바랍니다.



www.yulimgagu.co.kr

25년 전통의 축적된 기술로 탄생한

# YULIM 유림퍼니처

사무용 OA 가구, 싱크대, 불박이장, 쇼파, 신발장, 벽장, 문갑 등은 25년의 축적된 기술과 10여명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한 유림퍼니처 공장에서 직접 제작 판매



YULIM 유림사무용, 유림쇼파, 유림싱크

- 조달청 사무용가구 제조업체로 등록, 중소기업중앙회 인증 사무용가구 직접생산확인업체-  
유림퍼니처는 축적된 기술력과 검증된 제조업체로서 설악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노송가구** 종이재질의 친환경소재 혼수장농 및 혼수 신제품 전시, 신상품 할인판매

**상일리베침대 특별할인**

- 쇼 파
- 싱 크 대
- 사 무 용 가 구

**대진침대**

**- 유림쇼파 - 공장특별할인**

※ 싱크대, 불박이장, 서재, 전시판매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90-1 ▶유림퍼니처 공장 ☎ 631-3189

▶유림쇼파 공장 ☎ 632-3640 ▶대진침대 ☎ 631-3640 ▶노송가구 ☎ 635-5924

< 직원구함 >

- 저희 유림퍼니처에서는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함께 일할 가족을 구합니다-  
주방가구 영업에 경험이 있으신 영업사원을 모십니다.

# 고성 왕곡마을 축제 폐지 위기

## 복권기금 지원 안돼, 마을기금으로 가을 1회 개최

전통 북방식 가옥형태를 원형 그대로 간직한 고성군 왕곡마을의 축제가 4년만에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고성군은 올해도 문화재청에 복권기금 예산을 신청해 왔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복권위원회에서 복권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올해 복권기금 지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세기 조선시대 북방식 가옥과 풍습이 잘 보존돼 국가 중요민속자료 235호로 지정된 고성군 왕곡마을은 지난 2004년부터 민속축제를 열어 해마다 2만명 이상씩 찾는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왕곡마을 민속체험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얻으면서 문화재청도 2004년 복권기금 지원액을 당초 1억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 고성군은 다음해인 2005년도부터 여름과 가을 등 연 2회 축제를 개최했다.

이어 2006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6,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복권위원회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왕곡마을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 6개 민속마을에 해마다

1~2억원씩 지원해오던 축제 예산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왕곡마을 축제가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왕곡마을 체험축제는 단순 행사가 아닌 우리의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고성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우선 올해는 재첩축제와 함께 열리는 여름철 왕곡마을 축제를 폐지하고, 그 동안 축제를 통해 마련한 왕곡마을 발전기금 5,000만원으로 가을축제(10월경) 1회만 개최키로 했다.

황광을 고성군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청에 내년도 복권기금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로써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며 “왕곡마을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k92@goseong.org



양양송이축제위원들이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올해 송이축제 개최와 관련, 그동안의 홍보활동을 점검했다.

## 올해 양양송이축제 전문 이벤트사 선정 계획

양양송이축제위원회(위원장 김준식)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올해로 제 11 회를 맞는 양양송이 축제를 양양송이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차별화된 축제,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이뤄내는 국제화된 축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송이축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추진된 국제관광전 참가와 일본, 동남아, 홍콩 등 국내외 홍보활동, 앞으로 진행될 세부추진 계획들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양군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축제 전문 이벤트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축제 전문이벤트사는 최근 수주 실적 및 개최 결과와 양양군의 각종 축제시 행사참여 실적, 관광객 유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 등을 종합 검토해 축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김준식 위원장은 “양양송이축제는 지난해 10주년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특산물 축제로 공인받은 만큼 올해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기부양과 연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와 양양시장, 송이산지에서 열리며,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행사는 앞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간 진행된 다.

김주현 기자 joo@soraknews.co.kr

# 중앙로서 상설문화공연 연다

## 설악관광·쇼핑거리축제, 7~10월 금·토요일 저녁에

속초시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해 ‘관광객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설악 관광·쇼핑거리축제’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설악 관광·쇼핑거리축제는 중앙로 리복 앞과 KT 앞 블루마린관광호텔 광장에서 이달 27~10월 27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펼쳐진다.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거리공연 형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연극, 품바, 모듬북, 사물놀이,

이, 전통 및 창작무용, 스포츠댄스, 힙합댄스, 가요, 색소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번갈아 펼쳐진다.

첫날인 오는 27일에는 오후 8시부터 바가지요금과 고객행위 근절 내용을 담은 극단 굴렁쇠의 퍼포먼스 ‘속초, 아! 봄을 먹을 때다’와 댄스, 색소폰, 모듬북, 가요 공연 등이 선보인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여름밤에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려 피서철 야간 볼거리로 자리매김했던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

장재환 기자



- 2007년 속초청년회의소 슬로건 -

### “새로운 역사, 행동하는 청년의 힘으로”

♥속초청년회의소 회원 업체♥



이 재 수  
속초청년회의소  
홍보활동이사

## (주)도드람푸드

학교급식, 콘도, 호텔, 가든, 식당 육류 납품업체  
영업과장 이재수

TEL. 635-2933 H.P : 016-591-7104

위치 : 속초시 교동 934-12

### 속초청년회의소 신입회원공고

❖자 격 : 속초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42세 까지  
진취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년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추천서, 이력서(등)

❖연 락 처 : 속초 JC 사무국

TEL. 033) 633-3435 / 사무국장. 010-7185-5114

# 우리 동포와의 뜨거운 만남 그리고 피의 교류

## 속초예총·제8회 훈춘가요제 참관기

싱그러운 초여름의 바람을 맞으며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속초예총 한기학 지부장님과 우리 35명 일행은 기다리던 뉴동춘호에 승선하였다.

그날 따라 쾌청한 6월의 하늘과 바다빛 같은 더욱 푸르러 에메랄드처럼 반짝였다.

파도는 흥겨운 리듬으로 춤추듯 나부끼고 뉴동춘호는 미끄러지듯이 러시아를 향하여 순항을 시작했다.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매스개입처럼 원무를 펼치면서 일행을 인도해 주었다.

나는 처음 큰배를 탄 탓에 긴장과 두려움에 움츠렸으나,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바다 저쪽 미지의 세계를 응시하였다.

우리가 이용한 뉴동춘호는 1만3,000톤급, 승무원 40명(중국인 20명·한국인 20명)으로 1주 3회 운행.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라고 하였다. 그날 동춘호에는 세계 여러나라 승객 599명이 우리와 함께 했다. 러시아 자루비노항까지는 16시간 경과된다고 했다.

나는 1층 침실에 여장을 풀고 갑판 위에 올라가서 일망무제 바다를 가슴으로 가득 안았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사진도 찍고 즐거운 대화의 꽃을 피웠다.

파도는 잔잔하였고 살찐 갈매기들은 이리 저리 비행하는데 나는 바다를 지나가면서 또한번 허무의 늪에 빠진 듯 숙연해졌다.

### 이 바다 어떠한 위치에 나는 놓여 있는가

여행의 첫날밤은 뉴동춘호 침실에서 숙면을 취하였다. 우리가 잠든사이 뉴동춘호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 다음날 아침 11시 러시아 자루비노항에 도착하였다.

자루비노 상륙이후 러시아 경찰에 의하여 3회 검문검색이 여성경찰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무사히 검문을 전원 통과, 1시경 중국 훈춘시 아리랑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다.

나의 룸메이트는 1971년도 속초중앙초교 재직시 제자 유영순, 정경숙이어서 마음이 편하였다. 귀여운 유영순은 국악협회, 정경숙은 연극협회 굴림쇠 부대표라 한다. 여행의 첫단추가 잘 꿰어져 기뻐했다.

다음에는 일행과 더불어 삼륜차를 타고 머니체인지를 하려고 시내로 들어갔다

길림성 김동수 국장님을 만나 푸짐한 접대를 받게 되어 감사하였다. 상추쌈과 불고기 푸짐하게 저녁식사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식사 후에 야시장에 나갔다.

훈춘시 야시장 풍경은 잊을 수 없는 한 폭 휴머니즘의 그림이었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환담하는 풍경이 평화스럽게 보였다. 야시장에는 상품이 갖가지 진열되어 값 싸게 거래되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김동수 국장님께 나의 열번째 시집 <일새들은...> 한권을 기증하였다. 다음날(28일)은 두만강 유적지 탐방과 중국, 러시아, 북한 세나라를 한눈에 바라보는 언덕에 올라갔다. 두만강 폭은 50m~100m로 일정치 않았으며 주변 고장 방천의 민속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저녁식사는 아리랑 호텔에서 하고 시내 노래방에 일행들이 함께 갔다. 중국 무희들의 가무가 빼어나 보였다.

그날밤 호텔 침대에서 취침 중에 나는 갑자기 구토증이 났다. 얼른 권정남 시인이 챙겨준 제사제 큐다이스2알을 먹고 진정시켰다. 다음날 큐다이스를 계속 식사



지난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 훈춘에서 열린 제8회 훈춘가요제 시상식 모습.

후 복용하였다. 권시인의 자상한 손길에 깊이 감사드린다.

다음 29일에는 길림성 훈춘시 제일실협소학교를 방문하고 김옥 교장(30대여성) 선생님을 만났다. 그 학교는 재적수 1280명이었으며, 여교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여성과위가 팍팍 느껴졌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학습자료 40명분(황금찬, 김종명시인의 시)과 갈피 36호 한권을 김옥 교장에게 증정하였다.

예정된 나의 수업은 그 학교의 사정(학교보수·수리)으로 인하여 생략되었으며, 속초문협에서 준비한 상품과 상장은 김춘만 지부장을 대신하여 내가 수여하였다

### 민족의 동질성 회복 기폭제

최지순 강원예총 회장님, 채용생 속초시장님, 한기학 속초 예총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제일실협소학교 어린이들의 학예발표가 세련된 프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우리 2세대의 푸른꿈이 엮보였다.

29일 오후 6시 30분 드디어 길림성 영극원에서 제8회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개최되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곳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왔다. 마치 명절 축제 분위기였다. 속초 김양선의 순서는 특

출한 가창력으로 우리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훈춘가요제는 속초와 훈춘의 교류활을 도모하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피의 교류를 해주는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모티브가 성장하여 통일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조국을 떠나 일제의 핍박과 생활고로 민주별관을 떠돌이 하던 우리 선배 문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한 민족 문인 다수가 간도땅에 이주하여 이념적 사회적 상상력의 억압으로 창작작품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유물사관 문예관을 어쩔수 없이 수용하면서 공산당 찬양시·송시 일변도로 흐르게 되었던 이들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나는 눈시울이 젖어 들었다.

나는 이번 훈춘가요제에 참여하면서 피의 동질성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속초시와 훈춘시의 자매결연이 더욱 발전하여 통일의 모티브가 되기를 기원한다.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속초항 도착. 일찌기 마중 나와주신 권정남 시인과의 만남은 잊을수 없는 고마움이다. 그리고 이번 제8회 훈춘가요제를 기하여 나는 우리 소외된 동포와의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뜨거운 피의 교류를 하고 돌아왔다. 박명자(시인, 길외회장)

## 『07 강원관광아카데미』교육생 모집

- ◇ 교육과정명
  - 관광업체 종사원 재교육 -「직무향상 및 친절서비스」과정
- ◇ 교육생 자격
  - 도내 관광업체 경영자, 관리자, 관련 공직자 또는 3년 이상 관광관련직 종사자
- ◇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07년 9월 3일~12월 17일(4개월)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6시~10시(4시간씩 총 60시간)
- ◇ 교육장소
  - 경동대학교 관광특성화 강의실(국제회의실, 식음료실습실, 어학실습실, 공항실습실, 조리실습실 등)
- ◇ 원서접수
  - 장소 :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행정실(충효관 1419호) TEL 033-639-0320
  - 접수일시 : 2007년 7월 23일~8월 10일 오후 5시
  - 정원 : 35명(선착순)
  - 교육비 : 교육생 부담금 50,000원
- ◇ 교육생 특전
  - 강사료, 실습비, 교재대 등 총교육비 중 91.8%를 강원도에서 지원(경동대학교 일부 지원)
  - 강원도 및 경동대학교 명의의 교육과정 연수 수료증 발급
  - 우수 교육생 표창
  - 매주 간식 등 coffee break 제공

### ♥한국 관광교육의 1번지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7대 장점

1. 국내 최고의 취업률(7년 연속 95% 취업)
2. 국내 최고 최첨단 실습실(국제회의실 등 9종)
3. 국내 최다의 일류업체와 산학협력(조선호텔 등 160여개 업체)
4. 국내 최다 관광자격증 취득기관  
(국외여행인솔자 국가자격증 등 6종)
5. 국내최대의 학부규모  
(관광경영학, 관광통역학, 호텔경영학, 외식사업경영학)
6. 관광특성화 우수대학(2003년/ 2005년 이후 현재)
7.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선도(강원 R&D 본부 기관)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 속초시여성대학 '금남의 집' 빛장 푼다

## 제 41 기부터 남성수강생 16개 강좌 62명 모집...인기강좌 추첨제 도입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이달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제 41 회 여성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여성대학은 총 26개 강좌에 1,13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속초시는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 93년 여성교육문화센터 개관 이래 줄곧 '금남의 집'으로 불렸던 여성대학의 전통을 깨고 첫 남자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 과목은 한식·양식조리 자격, 정보화(컴퓨터) 과정, 생활미용, 글쓰기·글짓기 지도사, 한글반 등 16개 강좌로, 모두 62명의 남성 수강생을 받는다.

또 천연비누 만들기, 생활제빵, 생활요리, 요가(주·야간), 스포츠댄스(초급) 등 6개의 인기 강좌에 추첨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인기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새벽부터 접수창구가 물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첨 접수는 25~27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받으며, 방문 접수와 전화 접수 모두 가능하다.

추첨은 천연비누와 생활요리, 요가(주간)반은 30일 오전 10시에, 생활제빵, 스포츠댄스(초급), 요가(야간)반은 11시에 실시한다.

이번 여성대학의 수강료는 4만원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모·부자 가정, 국가유공자는 2과목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받는다.

한글반(주·야간)은 모든 수강생이, 생활용품(천연비누·한지공예) 만들기반은 55세 이상 수강생에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모집정원의 70% 미만 강좌는 폐강되며,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635-2525, 639-2394>

이우철 기자



국군 월남참전 43주년 및 제 6회 국군 파병의 날 기념식이 지난 18일 오후 속초 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 국군 월남참전 기념식 열려 월남전 파병일 기념일 지정 요구

국군 월남참전 43주년 및 제 6회 국군 파병의 날 기념식이 지난 18일 오후 속초 학생체육관에서 정문헌 국회의원과 홍우길 시의회 의장, 참전용사와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월남참전중앙회와 고엽제중앙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은 월남전 국군파병일(7월 18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비롯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 참전유공자 전투수당 진실규명 및 실질적인 보상,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국훈장 수여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재환기

## 여름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 환경연합, 8월 14~15일 까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2007 여름환경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름환경캠프는 '백담계곡에서의 한여름 밤의 꿈'이란 주제로 다음달 14~15일까지 인제용대리 만해마을 일대에서 1박2일간 열리며, 백담계곡 숲체험, 백담사 문화체험, 별자리 관찰, 생태체험 및 물놀이, 만해 한용운 선생 따라 시인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치게 된다.

8월 3일까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3만5,000원이다.

장재환 기자

# 고성, 이승만 별장 새 단장

## 8월부터 공개...4개의 전시실 입체적으로 꾸며

고성군 화진포 이승만 초대대통령 별장전시관이 새롭게 단장돼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내부 90㎡의 전시실 및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이달말까지 완료해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토록 했다.

새 단장되는 이승만 별장 전시관은 4개의 전시실을 스토리 전개 형식으로 꾸몄으며, 입체 그래픽, 실물전시, 각종 특수시설을 설치해 전시물 효과를 극대화 했다.

제1전시실은 '삶과 자취'를 주제로 이승만 박사의 연보와 대통령의 한시 200편 중 삶의 여정을 다룬 우수작을 뽑아 전시했다.

또 제2전시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를 주제로 이 대통령 삶의 발자취를 마련했고, 제3전시실은 '건국과

대통령의 길'을 주제로 초대 대통령의 취임, 한국전쟁과 반공정책, 정치와 사상, 외교와 경제정책 등의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제4전시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생활공간과 휴식공간, 기념품 및 지역관광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구성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통해 정치·문화 등 그 시대상을 돌아보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별장은 지난 1997년 7월 육군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신축 복원했고, 이 전 대통령 유가족들로부터 유품 53점을 기증받아 전시관으로 운영해 왔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고 정직하게...**

- 여권·비자 수속대행
- 국·내외 할인 항공권 판매
- 국·내외 여행알선
- 신혼여행
- 골프투어
- 성지순례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유학안내

◆동춘ahun 특별 여행안내◆

백두산 6일 실속	600,000
품격	700,000
블라디보스톡·해바로스	6일 1,000,000
9월 중남미 20일	7,500,000 모집중

**Nadri world**  
**(주)나드리여행사**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538 번지(시청 앞)  
T. 033. 635-8181~2(대표)  
어일훈·최영재 올림

**정통중국레스토랑**

**王(왕) 富(부)**

**속초의 명소**

각종모임·가족외식·약혼식·회갑·돌잔치·송년모임  
— 차량 운행 (단체환영) —

**예약 : 033)635-6012~3**



# 블라디보스톡 · 훈춘 방문기



김진기  
속초시의회 의원

6월 24일(일요일). 장마가 시작 된다는 예보를 뒤로하고 8박9일 일정으로 러시아와 훈춘시 방문을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배움을 받으며 시장 일행과 함께 뉴동춘호를 이용한 장도에 올랐다.

6월 25일(월요일). 2시간의 빠른 시차는 그다지 나에게 피곤함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자루비노항에 마중나온 2대의 국산중고

자동차에 탑승하여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자루비노에서 30분 거리에 크라스키노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안중근의사 단지동맹 기념비가 있었다. 12인의 용사들이 태극기를 펼쳐 놓고 각기 왼손무명지를 잘라 생동하는 선혈로 대한독립이라 쓰고 만세삼창을 하였다고 한다. 2001년 10월 18일 러시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기념비를 세웠다는 곳인데, 그곳에서 헌화를 하고 기념비 바로 앞에 남양알로에 목장을 시찰 할 수 있었다.

## 속초시 방문단의 철저한 준비

6월 26일(화요일). 블라디보스톡 코트라무역관 방문으로 하루의 일정을 열었다. 관광객 유치 위한 속초관광 홍보 및 사업설명회를 위해 블라디보스톡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하고 오찬 후 연해주 산협회와 블라디보스톡 주정부를 방문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일정으로 속초관광사업 설명회가 있었다. 홍보영상으로 속초를 소개하고, 시장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책자를 나눠주며 열정을 보이자 참석자들이 관심사항에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관광 관련 업체와 관계자가 50여명 참석하기는 처음이라는 말에 속초시 방문단의 철저하고 힘든 준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6월 27일(수요일). 극동대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박물관, 발해 역사 유적지를 시찰할 수 있었다.

한국학대학 강당에서 발해유물 발굴 및 유물의 순회전시와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협약서 조인식을 거행했다. (속초시·극동대학교·고려학술문

화재단) 발해 역사관 및 문화체험장 건립을 통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본다.

6월 28일(목요일). 훈춘으로 이동하기 위해 왔던 곳을 거슬러 올라가며 크라스키노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훈춘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1인당 통관료까지 1,200루블로 통관절차가 곳곳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지루하기 그지 없었다. 국경수비대를 통과하고 러시아 세관을 거쳐 검역 검사 후에 출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다.

6월 29일(금요일). 훈춘 제1실험 소학교 방문에 이어 훈춘시 인민정부를 방문하여 북방항로 및 양도시간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체육행사 정례화를 위한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속초로타리 클럽에서 훈춘 제2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행사에 참석한 뒤 동춘향운 훈춘지사 방문 후 저녁에 있을 훈춘가요제 참가를 위해 호텔에서 잠시 쉴 수 있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반점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 후 훈춘국제 가요제를 위해 방문한 속초예총 관계자들을 만날수가 있었다. 이국에서는 고향까마귀만 보아도 반갑다고 하더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반가웠다.

6월 30일(토요일). 훈춘시의 마지막 일정이라 아침 일찍 서둘러 소무역상 통관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장영자 세관을 시찰했다. 마침 속초항으로 떠나는 소무역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잠시 짐 싣는 것을 도와주고 고향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재래시장을 찾았다. 우리 중앙시장과 접목할 것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뛰어다녀도 공간이 없다는 부러움 외에는 이렇다하게 벤치마킹 할 것이 없었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릴 일들이 있어 필자를 안타깝게 했다.

이어 농업기술보급소 방문이 있었다. 훈춘시는 원시농업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속초시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방법을 전수하고 양도시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9동 설치물량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6동을 설치·운영 중에 있었다. 훈춘시 농민들은 시범 재배농장을 찾아 재배공법을 익히느라 하루에도 수십명이 찾고 있었다.

7월 1일(일요일). 훈춘시 경제합작구를 방문하여 고지마 봉제공장에 들러 1,000여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재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방천에 있는 3국 접경지인 망해각에서의 3국을 바라보고, 자리를 이동하여 연변조선족 자치주 시범중학교인 용정 대성중학교 옛터를 찾았다.

## 일송정 앞에 선날 늦게까지 잠 못이뤘

그곳엔 1931년 제17회 졸업생인 운동주 저항시인의 업적을 설명 들을 수 있었다. 일본 유학 중 사상범으로 투옥되어 광복을 앞둔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실험 대상으로 이름모를 주사를 맞다가 비참하게 순국하셨다.(당시 나이 29세)

10분 거리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니 하늘을 찌를 듯한 용정팔경의 하나인 일송정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가곡 선구자로 유명한 일송정은 일제시대 때인 1938년 독립운동을 위해 잦은 집회로 일본군의 폭격으로 소나무가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1991년 소나무를 다시 심었다 한다. 소나무 앞에 서니 해란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내 자신을 비우고 일송정이 들려주는 노랫말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오늘 느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필자는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7월 2일(월요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정부 리룡희 주장과 북방항로를 이용하는 소무역상의 안전문제, 동춘항로에 대한 세관·검역완화문제, 청소년 체육교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것으로 이번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무척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과 외자유치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는 점이다. 좋은 경험의 선물들이 포장에서 하루빨리 벗겨지길 기원한다.

연길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4시가 넘는 시간, 마중나온 시청버스에 몸을 싣고 사랑하는 내고향 속초로 향했다. 이번 발걸음에 보람을 안겨준 채용생 시장과 김지운 속초박물관장, 김만섭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을 비롯한 수행한 4명의 직원들에게 대단히 수고했다는 감사와 격려의 글을 올린다. 속초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초등영어 기초반 개강 2007년 8월 중순 PM 4:55 / 5:50 ◆현재 접수중 입니다◆		성인영어 기초 회화반 PM 7:40 / 8:35		일본어 기초회화반 개강 2007년 7월 16일 PM 6:45	중국어 여름방학 특강 PM 1:30	중국어 기초회화반 개강 오픈중국어 I 2007년 7월 16일 PM 4:00	
▶▶ 영어 회화 ◀◀							
오전반	7:00	Bernie	NATHAN	MARK	NIKI		
	8:00	성인 영어 회화 기초 I					
	9:30	성인 영어 회화 기초 II					
	9:30	성인 영어회화 기초 I (월, 수, 금)					
오후반	11:00	성인 영어회화 고급 (free talking) (월, 수, 금)					
	3:00	초등영어 Let's go 1	초등영어 Let's go 3	초등영어 Let's go 3			
	4:00	Elementary School English time 5	초등영어 Let's go 2	초등영어 Let's go 4	Elementary School Grammar step by step	Elementary & Middle Grammar	
	4:55	초등영어 English time 4	초등영어 Let's go 5	Middle school Grammar in use Intermediate	Elementary & Middle smart reading		
	5:50	Elementary & Middle smart reading	Middle School Grammar in use Intermediate	Elementary School Grammar step by step 1	초등영어 Let's Go 3		
	6:45	초등영어 기초 Let's Go 1	초등영어 기초 Let's Go 2	Elementary & Middle school Grammar step by step 1			
	지난 3일 속고 총동문화 체육대회가 보고 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축구 준우승을 차지한 37회 동문들이 우승 못지않은 세례모니로 자축하고 있다.						
	8:35	Headway starter	TOEIC시험 준비반		성인영어회화 중급 Interchange 1	성인영어 회화기초 Headway1	
		8:35	성인영어 회화중급	TOEIC시험 준비반		성인영어 회화기초 Headway1	
	♥적당하게 일하고 좀 더 느긋하게 쉬어라.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느긋하게 보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일어 회화♥      ♥중국어 회화♥							
오전반		川久保れい	内村香織	金銀子	禹東浩		
	10:00	일본어 기초 회화반(Shin Bunka1)					
	10:30	일본어 기초 I					
	11:30	일본어 기초 II					
	1:30	일본어 기초 회화반					
	2:30	일어회화 중급 (회화 일본어 I)					
	4:55	초등 일어회화 중급					
	5:50	초등 일본어 기초반 (Shin Bunka I)					
오후반	6:45	일본어 기초 (Shin BunkaII)		일본어 기초 (Shin Bunka I)			
	7:40	일어 기초반 개강 (Shin Bunka I)	일본어 기초반 (Shin Bunka I)	일어회화 기초 I (Shin Bunka II)			
	8:35	일어 기초반 개강 (Shin Bunka I)	일어고급 (1급 대비반)	일어중급 (2급 대비반)			
	10:00	중국어 기초회화 I					
	11:00	중국어 기초회화(301)					
	1:30	중국어 기초회화 I					
	4:00	중국어 기초II	중국어 기초개강반				
	4:55	오픈중국어 회화기초 I	초등중국어 기초 I				
5:50	오픈중국어 회화기초 I	실한어 (중급 I)					
6:45	설한어 (중급 II)						
7:40	설한어 (중급 I)	오픈중국어 회화기초 I					
8:35	오픈중국어 회화기초 I						

다리 외국어 전문학원 TEL : 633-0882

사·는·이·아·기

# 배려하며 산다는 것



전형배  
설악특판 유통 대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아름답다워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하는 그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름답다고 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 몰라도 누구나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돌아보면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고,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도 극히 자연스런 일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짧은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집 열쇠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속초의 열쇠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무척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도 나들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공구함으로 방범창을 열어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가 얼마나 듬직하고 고마웠던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내 젊은 날의 아내의 배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었을 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총각 혼자 사는 누추한 자취방에 살며시 와서 방청소리든지 빨래 등을 해주고, 혼자서 잘 사먹지 않게 되는 과일 등을 두고 우렁각시처럼 사라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느끼는 그녀에 대한 느낌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자식들이 드리는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그 자식들이 필요로 했던 무언가를 던지시 사다가 주실 때 느끼는 느낌도 감동이라는 말로 채 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일 겁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인 이 곳 속초에서 산다는 이유로 제법 많은 지인들이 각지에서 계절마다 찾아옵니다.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들로부터 반갑고 편

하게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 합니다. 그럴 때에도 네 살 박이 아이의 웃이나 장난감 또는 아내가 좋아하는 던킨도너츠(속초에는 점포가 없어서 맛 볼 수 없는)등을 사오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나 성별, 아내가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살짝 돋보이는 경우겠지요.

조금 많이 개인적이고 과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어쩌면 우정도 사랑도 모두 타인에 대한 지극한 배려의 또 다른 이름들이 아닐까요?

한편론 프랑스인들의 '플레랑스'를 생각해 봅니다. 대략 우리말로 고쳐보면 관용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부문의 노조가 과업을 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나도 프랑스인들은 그 불편함을 묵묵히 감내 하는 것을 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심리의 이면에는 내 자신의 권리도 당당히 주장하겠다는 심리가 물론 깔려있을 거라 추론해 봅니다. '플레랑스'의 아주 단편적인 해석이기는 해도 말입니다. 타인의 권리와 주장을 수용하는 모습은 자신과 생김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이 모두 다르더라도 타인들을 배려하는 성숙함이 묻어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배려하며 산다는 것은 아름답게 산다는 말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배려가 가능할 것입니다.

남의 염병이 나의 고빨보다 못하다는 우리 속담처럼,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우리네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정서일테지만, 내 배가 부르더라도 옆의 누군가는 혹 허기가 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배려하며 사는,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기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와 우중충한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모두 녹녹해져 버린 요즘,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위 하나가 구름 걷힌 햇살처럼 우리 몸도 마음도 뽕뽕송송 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왕곡마을축제 계속돼야

매년 성황리에 개최됐던 고성군 왕곡마을축제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문화재청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복권위원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왕곡마을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 6개 민속마을의 축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년 2회 개최하던 축제를 올해는 가을 한 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예산도 우선 그동안 모아온 마을 발전기금을 쓰기로 했다.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왕곡마을축제는 지난해만 해도 1만여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등 마을 민속축제로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 행사 내용도 떡메치기, 짚신만들기, 함씨와 최씨 깃대싸움놀이, 상여 외나무다리 건너기, 왕곡주 시음, 농산물 수확체험, 미꾸라지 잡기 등 왕곡마을의 전통민속과 자연의 체험행사들로 꾸며져 매년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제 막 자리 잡아가는 축제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그동안의 예산지원이 장기적인 전망 없이 생색내기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지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 지원을 중단했어야 했다. 문화재청과 복권위원회에서는 예산 지원 중단을 재고해야 한다.

### 설악신문 1990년 5월 28일 창간

- 창간이념: 지역사회의 밑거름, 지방문화의 활성화, 생활정보의 전달, 주민을 위한 신문
  - 발행·편집인: 박명중 · 인쇄처: 강원도민일보사
  - 편집국: TEL (033) 636-2222 ~ 4
  - 광고국: TEL (033) 636-2225 ~ 6 · FAX 636-2227
  - 등록번호: 1990.3.16. 강원다01008
  - 구독료: 월 3,500원 / 1년 40,000원
  - 1992.6.12 제3종 우편물(가)인가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고객과 함께하는

속초소방서 맞은편

# 이정종합광고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성실하게 시공합니다.

간판	플래카드	상패	명스티카
네온	현황판	패피	팅카
특수간판	조감도	트로피	성라타
아치	에드벌룬	우승기	라이타
선전탑	아크릴	조	판촉물

- 각종 간판 최요금 (무료견적환영)
- 현수막 20분 완성 (최신 실사기 3대 보유)
- 상패, 명패, 트로피 1일 완성
- 신속한 A/S, 확실한 보장

TEL : (033)632-1100 / 631-9831~2 • FAX : (033)631-9833 • 공장 : (033)636-8966

속초에는 천일안경원이 있습니다

# 속초 천일안경 · 콘택트

시력을 잃은 후로 사물과 멀어졌지만

힘력을 잃은 후에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헬렌 켈러-



- ◆ 오클리
- ◆ 아디다스
- ◆ 레이밴
- ◆ 루디프로젝트

- ◆ 골프
- ◆ 등산
- ◆ 스키
- ◆ 사이클
- ◆ 수영



세계 최첨단 누진 다초점렌즈 전문측정기기(강원도 유일)

## 스포츠 고급 전문매장

속초 천일 안경 · 콘택트 · 보청기

[www.1001eye.co.kr](http://www.1001eye.co.kr)

T. 033. 633-1001

\*금호 · 한흥 주차장 무료주차\*